2020년 신나는예술여행
지원심의 총평

2020. 3.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부

목 차

1. [종합]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 1

2. [매칭형]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 6

3. [기획형]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 20

4. [청년형]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 37

종합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ㅇ 지원취지 및 접수현황

<신나는예술여행>은 수요자 중심의 향유지원 사업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국민의 일상 속에 다채롭게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 한 해 244억원의 예산으로 총 368개의 예술단체가 8,348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988,311명의 관객을 만났다.





올해는 232억원 규모 사업에 2,329건의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어 두 달여의 심의 끝에 총 284개의 단체가 선정되었다. 최근 3년간의 지원신청경향을 보면 신청단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선정단체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전체 사업예산이 큰 변동이 없음에도 선정단체수가 줄어들고 선정 경쟁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소수 정예의 우수 예술단체를 선정하여 단체당 지원액('18년 평균 약 4천만원 → '20년 기준 평균 약 8천만원)을 늘려 수준 높은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나는예술여행>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려는 방향과 맞물려 있다. 본 사업이 2004년에 시작된 이래 유사한 타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이 국내에 다수 생겨났으며, 이는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와 함께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대상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 차원에서는 분명 환영할 일이나, 예술현장 및 향유자에게 <신나는예술여행>과 타 유사사업이 차별성 없이 인식/운영 되고, 타 기관의 유사 공모사업에 수차례 지원신청서를 반복해서 작성하며 예술단체가 행정 업무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다.

소액다건 지원을 통한 소규모 프로그램 행사는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역문화진흥원 등의 사업을 통해 구현되기를 바라며, 국제무대에 내놔도 손색없는 우수 예술단체가 본 사업에 많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대다수 심의위원들의 종합된 의견도 있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이러한 경향성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국 각지 우수한 예술단체들이 신나는예술여행에 더욱 많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심의 방법 및 선정결과

올해 심의에서 주요하게 반영된 사항은 **1.‘전수검토제 실시’ 2.‘그룹 인터뷰 심의’ 3.‘지역협력 찾아가는 심의’ 4.‘지역 선정비율 최소보장제 실시’ 5.‘전년도 평가결과 환류’** 이렇게 총 5가지이다.

1.‘전수검토제’는 심의일 약 2주~4주 전 심의위원들이 사무처로부터 전달받은 지원신청서를 전수 검토하여 가채점 및 그 근거를 사전에 서술하는 제도이다. 이는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히 지원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 검토 여부를 확인 위해 지원심의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심의 당일에 심의위원들은 각 단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토의에 임할 수 있었다.

⇒ 개별 가채점 경향 분석자료 공유, 심의위원간 채점결과가 극단으로 나뉘는 사업에 대한 토론 유도를 통한 다양한 관점 확인 유도

2. 문학순회를 제외하고 기획형 사업은 4개 유형 모두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심의’를 진행하였다. 그룹 인터뷰는 주로 서류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신청단체의 본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의지, 과거 유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행력 보유 여부 등의 파악이 중요한 기획형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통상의 심의위원단 對 지원신청단체 구도의 일방향 인터뷰 방식에서 탈피, 인터뷰 배정 시간이 보통 단체 당 10~15분에 그치는 것에 비해 이번 그룹 인터뷰(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대상지별, 유사 사업성격별 등으로 구분하여 그룹 편성)는 평균 30분 정도의 시간동안 신청단체 외에 타 단체의 고민과 답변내용을 듣고 학습의 기회 제공과 향후 단체간 협력가능한 네트워크 형성까지도 기대하는 방식으로 진행

3. 청년형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별로 ‘찾아가는 심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문화예술재단과 함께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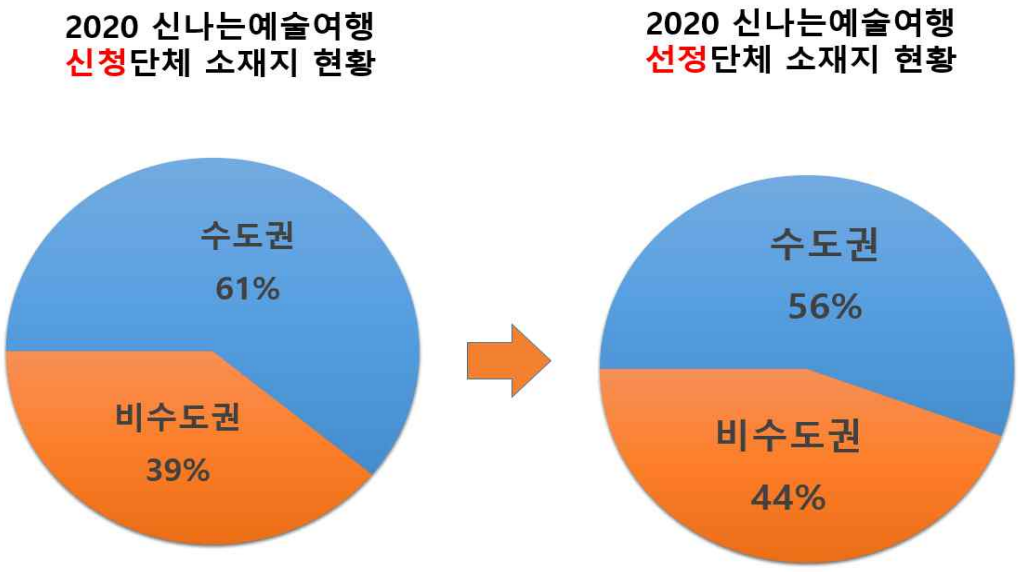
협력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실시된 것으로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로 보유한 청년예술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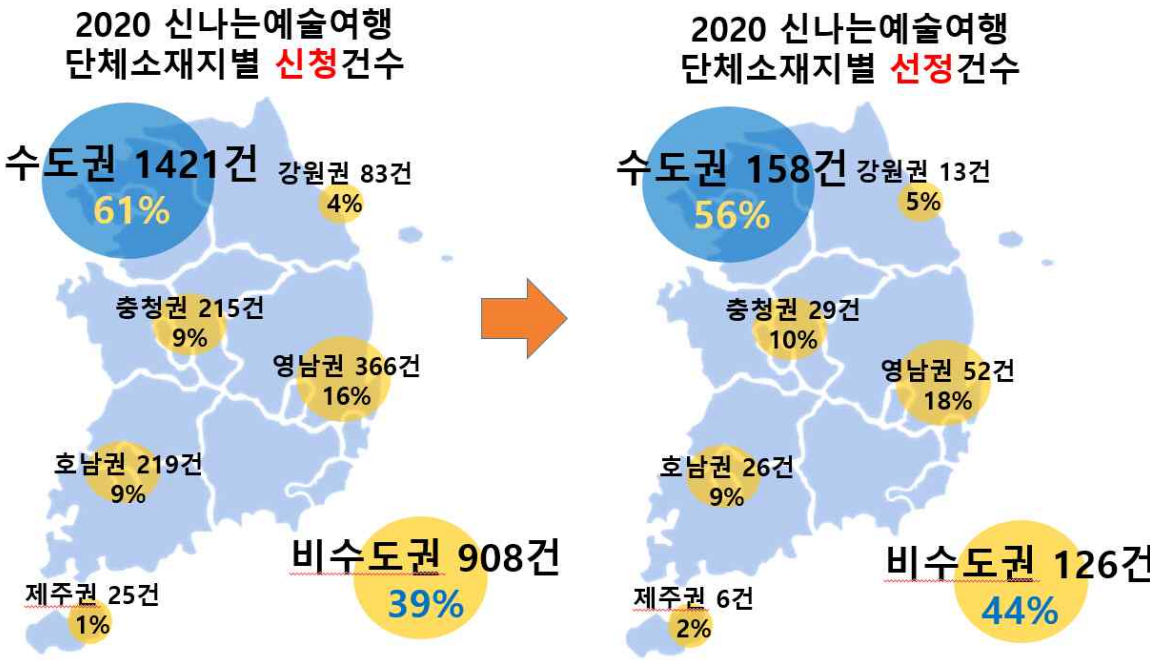
⇒ 이를 위해 전년도 10월~11월 동안 17개 광역문화재단(경북의 경우 도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본 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4회의 기관 통합사업설명회 외에 본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설명회를 총 5회 추가로 개최(최초로 울산, 순천 등에서도 개최하여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홍보)함.

4. '지역 선정비율 최소보장제'는 지역불균형 지원 해소를 위해 수도권·비수도권의 신청률 대비 선정률을 가능한 동등하게 유지하여 서울/경기 이외에 소재하는 예술단체도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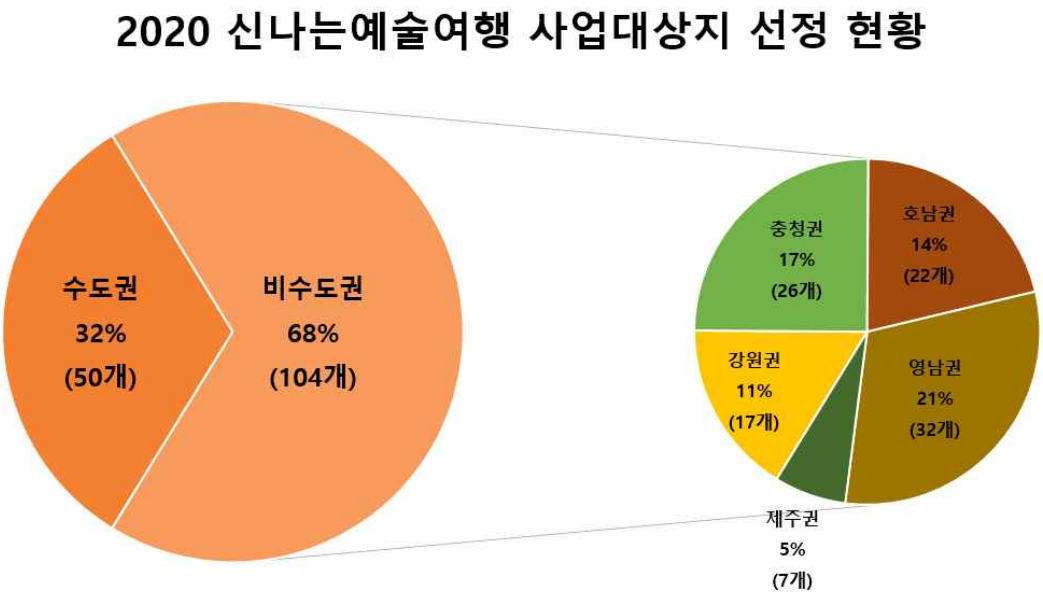
그 결과 수도권 대 비수도권 단체의 6:4 신청비율은 선정 결과에도 해당 비율이 유지(비수도권이 소폭 상승) 되었다.

⇒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한 도입 취지를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고, 소위 중앙무대 활동경험이 적거나, 단체의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단체 역량에 비해 지원신청서 작성의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보다 익숙한 서울소재 단체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그간의 경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한편, 수도권 소재 단체가 과반이 참여한 것에 비해 사업대상지(* 지원신청서內 사업대상지를 권역별로 기재하도록 한 기획형, 청년형 사업에만 해당. 문학순회 제외)는 70%가까이 비수도권 지역이다. 이는 문화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본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신청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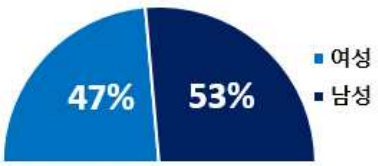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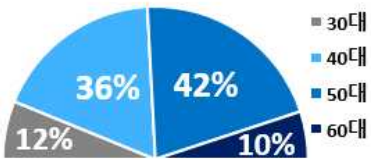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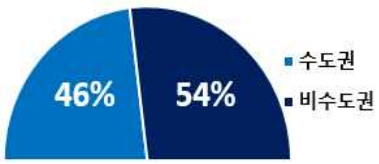


5. 마지막으로 ‘전년도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19년도에 본 사업에 참여한 단체(총 282개 단체가 해당)의 경우 ’20년도 심의결과 80%에 전년도 평가 점수 20%를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 심의기준 항목에 적용하여 최종 선정 단체를 확정하였다.

실제로 전년도 평가 결과는 최종 순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심의위원 채점 기준 상위권에 위치한 단체가 전년도의 낮은 평가등급(D등급)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고(38개 단체), 반면에 심의위원 채점 기준 중위권에 위치한 단체가 전년도 평가등급(S등급)으로 인해 최종 선정권으로 안착한 경우(12개 단체)도 일부 확인 할 수 있었다.

⇒ 평가결과 환류에 대한 중요성은 그동안 심의위원과 현장평가위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인 지원신청서 당시 서류상으로는 그럴법하게 작성하여 선정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구현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던가, 출연진의 역량을 높이 평가 받아 선정된 단체가 정작 실제 출연진을 사전 협의도 없이 아마추어 수준으로 교체하거나, 결과보고서에는 출연했다고 기재했으나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경우 등이 적잖게 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평가결과 환류 과정인만큼, 예술위원회에서는 최초로 평가결과를 해당 단체별로 작년 12월 말 공개했고, 1차에 걸친 이의제기 및 소명절차를 진행해 총 30건의 이의제기 접수 건 중 사실관계가 확인된 6개 단체의 평가등급 조정이 이루어졌다.

참고로 심의위원 구성은 ‘2020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 심의위원POOL’(총1,180명, https://pool.arko.or.kr/)에서 5배수로 무작위 추첨된 리스트를 가지고 지역, 성별, 신진 안배(심의별 최소 1인 이상)를 고려하여 위촉하였다. 그 결과 총 89명의 심의위원이 구성되었다.

심의위원단 **‘성별’** 구성	심의위원단 **‘연령’** 구성	심의위원단 **‘지역’** 구성
		

각 사업별 주요 지원취지, 전년대비 변경 사항, 그 외 상세한 심의진행방식 및 결과는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살펴보겠다.

Ⅰ. 매칭형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ㅇ 일시 : 2020년 2월 3일(월) ~ 7일(금)

ㅇ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 3층 대회의실

ㅇ 분야 : 연극, 무용, 음악(클래식),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

ㅇ 심의위원 : 총 29인 * 다원예술과 문화일반은 통합하여 심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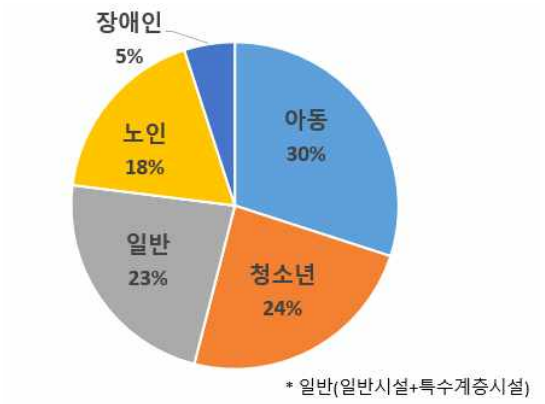
- 연극(5인) : 염혜원, 안경모, 윤서현, 윤만식, 김영신
- 무용(7인) : 강주미, 이숙진, 문치빈, 장광열, 이송, 박시종, 김현진
- 음악(클래식)(5인) : 조지현, 문옥배, 임주섭, 서승희, 김진수
- 전통예술(6인) : 차예지, 유선미, 이석규, 이윤경, 김광희, 이덕인
- 다원예술・문화일반(6인) : 김종헌, 정지안, 태승진, 윤동희, 최병진, 조영미

ㅇ 해당사업 지원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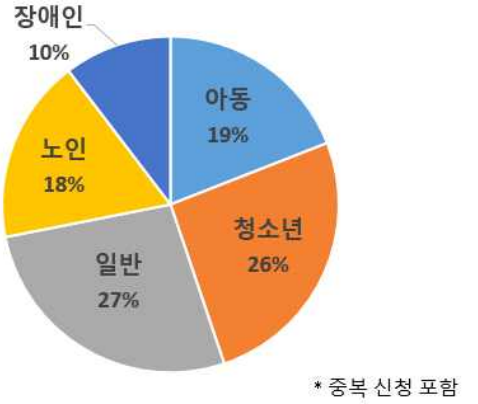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은 역량 있는 예술단체가 공연장 외 다양한 시설과 야외 장소를 직접 찾아가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국민의 일상 속에서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특히 기초예술 분야의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예술단체와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 상호 만족도 높은 공연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258개의 예술단체가 2,532개의 시설을 방문하여 323,347명의 관객을 만났다.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 사업은 공모 안내 및 지원신청서를 통해 전년과 크게 달라진 3가지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1. '20년도에는 매칭되는 시설유형(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등) 제한을 없애고, 대상 관객(아동, 청소년, 노인, 일반, 장애인)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단체의 사업신청 범위를 확장하고 관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집중되어 있던 작년과 달리 비교적 수요가 적었던 장애인과 일반 관객에 대한 예술단체의 고려가 늘어 분산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 30%→19%, 장애인 5%→10%) 이를 통해 한 가지 시설 유형에 맞추어 공연되었던 레퍼토리가 여러 관객층에 맞추어 폭넓게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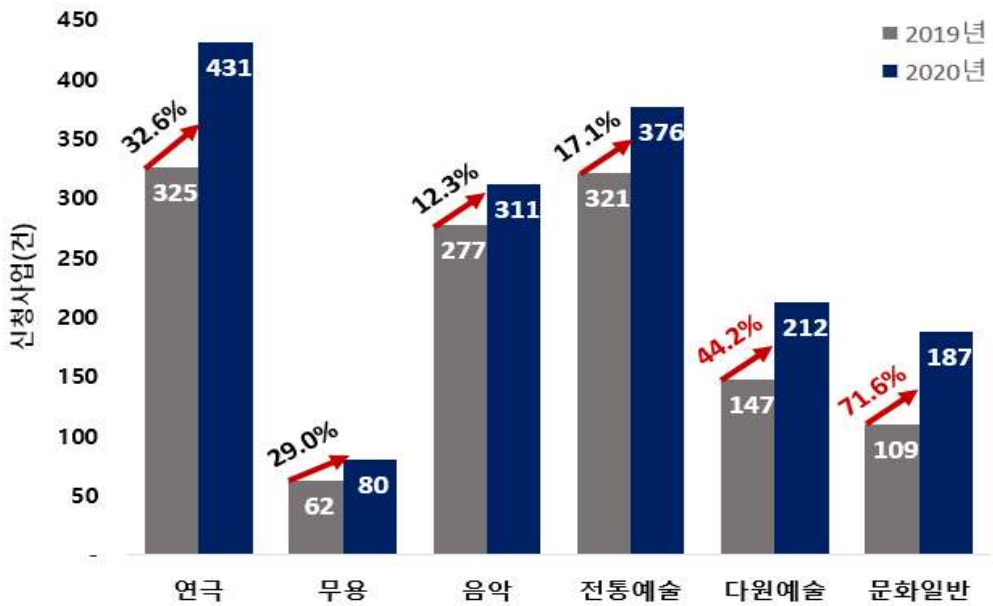


2019년도 매칭형 시설유형별 신청현황



2020년도 매칭형 주요관객층 신청현황

2. 시각예술 분야를 <신나는예술여행(기획형)>으로 이관하고, 매칭형 사업은 공연예술 분야에 집중하였다. 1개의 장르가 축소되었음에도 매칭형 사업 신청률은 전년대비 26%가 상승하였다. 이렇듯 많은 단체의 지원이 몰린 것은 전국을 순회하는 최대 20회의 공연기간 동안 관객과의 집중력 있는 소통을 통해 단체의 역량을 다져나가는 본 사업이 많은 예술단체들에게 유의미한 사업으로 인식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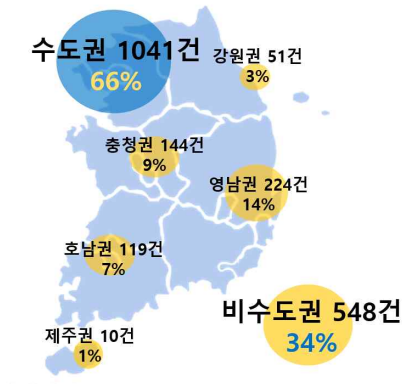
세부분야별 접수현황

3. 아울러 작년까지 단체별로 프로그램 당 약 100만원~600만원을 차등 지원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모든 단체에게 1회당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원금이 조정되는 비효율성을 줄이고, 예산편성의 불확실요소를 제거하여 예술단체가 보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다. 또한 올해에는 기획·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기획사에 대한 일반용역비 지원을 통해 예술단체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단체 보유장비 활용을 통해 예산사용의 유연함을 부여하고, 전년 대비 여비(숙박비, 식비) 사용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공연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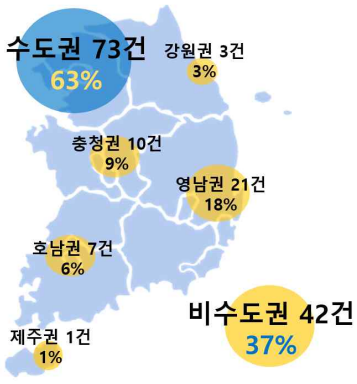
그러나 위와 같은 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예술단체가 기본적인 작성지침을 지키지 않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다양한 레퍼토리 발굴을 위한 새로운 시도나 고민 없이 정형화된 기획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는 본 사업의 개선 방향을 잘 이해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기획을 제출함으로써 역량을 보여주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할 수 있었다.

○ 심의 접수현황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은 6개 장르에서 1,597건이 접수되었다. 지원신청서 미첨부 및 사업유형 선택오류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 결격처리된 8건을 제외한 총 1,589건을 대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 올해 예산이 2019년도 130억원 대비 23% 감소한 100억원으로 책정된 반면, 예술단체의 지원 건수는 26% 증가하여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3: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종 115건의 예술단체가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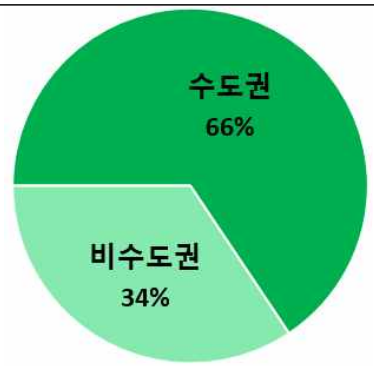


매칭형 지원 단체(1,597건) 소재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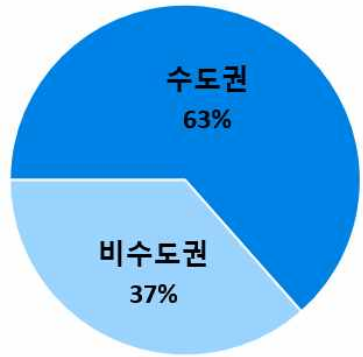


매칭형 선정 단체(115건) 소재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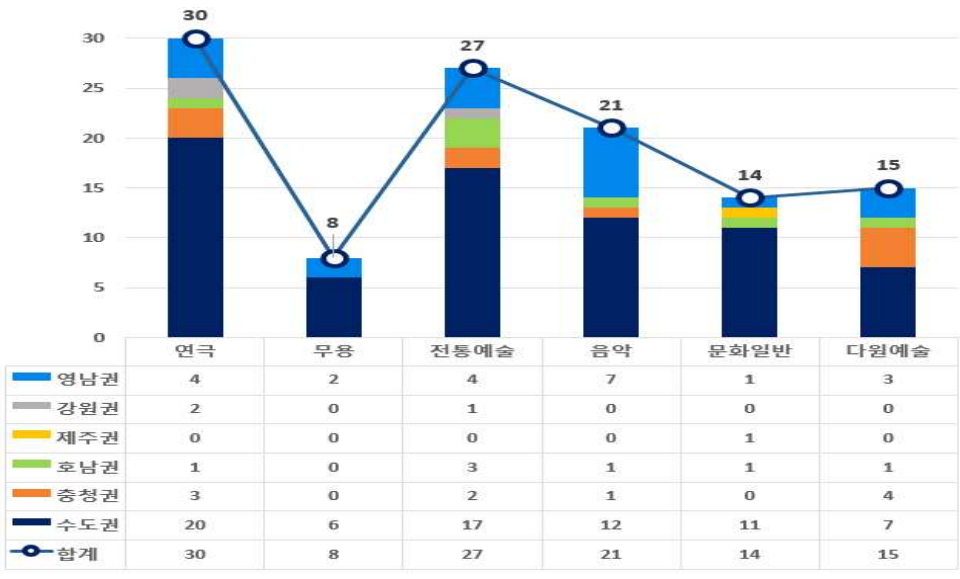
올해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의 특이사항은 지역우대를 위한 '지역최소보장제'를 시범적용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의 신청률 대비 선정비율을 가능한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비수도권 지역 예술단체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신청비율이 65% 대 35%의 비율을 이루었는데, 선정 결과 역시 거의 비슷한 비율인 63% 대 37%로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였다. 이는 심의과정에서 사무처가 지역안배에 대한 위원회의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이 이에 대해 수긍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지역안배에 대한 노력은 비수도권 지역을 소재로 한 예술단체에 대한 무조건 지원이 아닌, 예술성을 기본 판단기준으로 두되 지역 예술의 성장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매칭형 지원 단체(1,597건) 소재지 현황



매칭형 선정 단체(115건) 소재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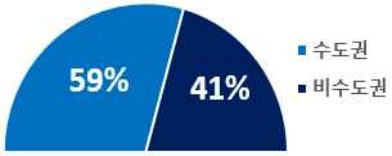


	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문화일반	다원예술
영남권	4	2	4	7	1	3
강원권	2	0	1	0	0	0
제주권	0	0	0	0	1	0
호남권	1	0	3	1	1	1
충청권	3	0	2	1	0	4
수도권	20	6	17	12	11	7
합계	30	8	27	21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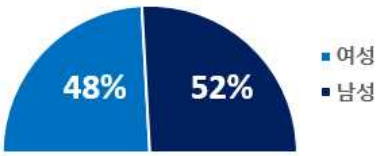
분야별 선정 단체(115건) 소재지 현황

ㅇ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 진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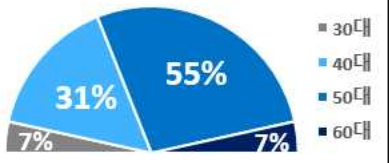
본 사업은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감 있는 심의를 운영하기 위해 지역, 성별, 신진 안배를 고려하여 심의위원단을 위촉하였다. 당초 각 장르별 7인의 심의위원단을 구성하였으나, 개인상의 이유로 미참여한 6인을 제외 최종 29인의 심의위원이 <신나는 예술여행(매칭형)> 지원심의를 진행하였다.



매칭형 심의위원단 **'지역'** 구성



매칭형 심의위원단 **'성별'** 구성



매칭형 심의위원단 **'연령'**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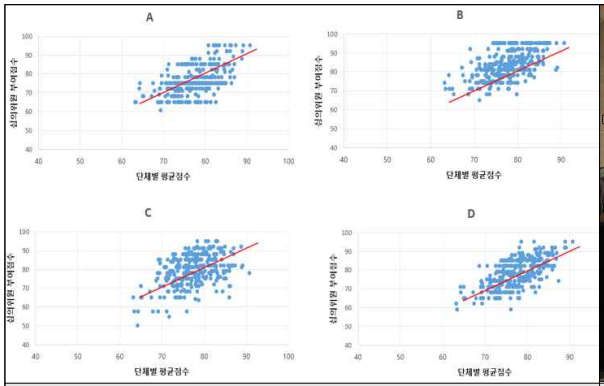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 심의 또한 1단계 '사전 전수검토제'와 2단계 '서류심의'로 진행되었다.

1단계로는 '사전 전수검토제'의 일환으로 매칭형 사업의 심의위원단이 1개월 동안('19.12.31~'20.1.30) 모든 지원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 사업에 대한 평가의견을 작성한 뒤 '온라인 가채점'을 진행하였다.

2단계로는 '서류심의'('20.2.3~'20.2.7)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주 본관에 모여 사전 전수검토 및 온라인 가채점 채점 결과를 공유하였다. 개별 사업에 대한 심층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체 신청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공유 및 종합토론을 병행하였다. 특히, 사무처에서 사전 가채점에 대한 심의위원별 경향성을 분석하여, 위원별 관점을 존중하되 심의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관하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방대한 양의 신청건수 속에서 가채점 결과 상위에 랭크된 단체를 중심으로 논지를 가져가되, 심의위원 간 사전 채점 편차가 큰 단체를 이슈화하여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본 사업의 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서류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과 심의위원 간 의견차이가 큰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예술단체가 지원신청서를 통해 제출한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실제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자료로 역할을 하였는데, 여전히 많은 예술단체

가 동영상 링크를 첨부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를 첨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사업은 서류심의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차후 본 사업에 지원 신청하는 예술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보다 섬세한 지원신청서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채점 경향성 분석(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 자료)



영상자료 시청 장면

최종 순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2019년 신나는예술여행>에 참여이력이 있는 단체는 심의위원 채점결과 80%에 전년도 평가결과를 20%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 평가 결과는 최종 순위 결정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심의위원 채점 기준 상위권에 위치한 단체가 전년도의 낮은 평가등급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고, 반면 심의위원 채점 기준 중위권에 위치한 단체가 전년도의 높은 평가등급으로 인해 최종 선정권으로 안착한 경우도 일부 확인 할 수 있었다. 심의위원이 채점한 순위와 평가 결과 환류 후의 최종 순위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는 점은, 사업 선정 이후 예술단체의 사업운영 역량이 작품의 수월성과 더불어 본 사업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 사업에 1,597개의 유망하고, 역량 있는 예술단체가 지원했다는 점을 통해 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새삼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예술단체의 고민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정적인 예산이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본 사업의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고심하여 지원신청서에 담은 단체들을 위주로 선정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원을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온 국민에게 수준 높은 예술을 선사해주시길 바란다.

○ 매칭형 '연극분야' 심의평

올해 연극분야에는 총 431건의 지원신청사업이 접수되었다. 이중에서 행정결격 3건을 제외하고 428건을 대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위원들이 사전 전수검토를 진행하며 모든 지원신청서를 살펴본바 올해의 경향을 대략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공연 환경에 대한 제약이 적은 아동극이 강세를 보였다. 세부분야별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선정된 30건 중 10개의 프로그램이 아동극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는 전문 공연장이 아닌 공간에서 공연을 진행해야 하는 본 사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반면, 신청 프로그램의 향유대상층이 아동 관객으로 편중되는 현상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연극분야의 향유대상층이 폭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 등 다양한 관객층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

세부분야	창작극	인형극	넌버벌·마임	뮤지컬	아동극	연극공연	번역극	기타	합계
건수(건)	9	2	1	3	10	5	0	0	30
비율	30.0%	6.7%	3.3%	10.0%	33.3%	16.7%	0%	0%	100%

세부분야별 선정 현황

둘째, 대부분의 신청사업이 기존 신나는예술여행에서 진행되어왔던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업 구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올해는 예술단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1회당 500만원을 정액지원 하였으며, 단체 보유장비 활용을 통해 예산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실제 위 요소를 잘 활용한 예술단체가 많지 않은 점이 아쉽다. 기존의 틀을 답습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을 발굴하기 위한 시도와 적극적인 고민이 요청된다.

연극분야의 심의는 예술단체가 선택한 주 관객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려는 의지가 분명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의 경우 이미 발표된 작품을 공연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공연장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작품보다는 전문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효과적으로 작품을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우선하였다. 더불어 우수한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소재 예술단체 발굴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최종 선정된 30개의 예술단체는 명확한 관객층의 설정과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극 장르의 경우 공간과 관객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공연이라도 무대구성 및 전달력 측면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선정된 예술단체는 본 사업 참여에 있어 향유대상자와 순회처의 공간특성을 이해한 접근을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평가결과가 환류 됨으로써 11개 예술단체의 선정당락이 뒤바뀔 만큼 상위권에 위치한 예술단체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심의위원들 역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의에 임하였으나, 더 많은 예술단체를 선정하지 못함에 아쉬움을 느낀다.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연극이 지닌 무한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예술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예술단체에게 응원을 보낸다.

ㅇ 매칭형 '무용분야' 심의평

무용분야에는 총 80개의 예술단체가 지원 신청하였다. 장르별 분포로는 한국무용 34건(42%), 현대무용 20건(25%), 발레 15건(19%), 그 외 기타(복합)장르 11건(14%)으로 한국무용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심의위원들은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의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단순 공급과 수요의 구조에 따른 '수혜자'가 아닌 '향유자'로서 관객을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예술적 완성도와 실행의 구체성이 담긴 기획을 우선하여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첫 번째, 기존 레파토리의 단순 재공연이 아닌 관객 대상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순회처의 불특정 공간과 향유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두 번째, 예술적 완성도를 위한 역량 있는 예술가의 참여 여부와 단순 흥미유발 위주의 기획이 아닌, 무용이라는 예술적 가치를 관객과 상호 소통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석한 기획인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예술단체가 관객과의 소통·참여를 단순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석하여 소극적이고 단조로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한 점은 아쉬웠다.

세부분야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기타(복합)	합계
건수(건)	2	4	1	1	8
비율	25.0%	50.0%	12.5%	12.5%	100%

세부분야별 선정 현황

최종적으로 무용분야에서는 8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안배와 세부 장르에 대한 고려 역시 중요한 이슈였으나, 전년도 평가점수가 환류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채점 결과 상위권 단체 중 50%에 해당하는 4개의 예술단체의 선정 당락이 뒤바뀌었다. 그 결과 수도권 6개(75%) 단체와 비수도권 2개(25%)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장르별로는 발레 4건, 한국무용 2건, 현대무용 1건, 기타(복합)장르 1건으로 신청 대비 발레의 선정비율이 상승하였다.

전문 공연장에서 꽤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보여준 작품들이 적지 않게 신청되었다. 선정 단체들은 사업 수행시 장소가 전문 공연장이 아닐 경우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관객층을 복수로 신청한 단체의 경우 각각 어떻게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꼼꼼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신나는예술여행>은 한 개인의 '예술적 경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에 방점을 두는 공적 지원 사업이다. 그러므로 선정된 예술단체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무용예술의 미적 체험의 공유 및 저변 확대에 힘써주시기 바란다.

ㅇ 매칭형 '전통예술 분야' 심의평

전통예술 분야 공모사업에 총 376개 단체가 지원 신청하였다. 이중 행정 결격 처리된 2건을 제외한 총 374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올해 전통예술 분야 지원심의의 쟁점은 비트박스, 서양 클래식, 샌드아트 등의 타 장르가 결합된 융합적 성격의 레퍼토리를 전통예술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었다. 실제로 지원 신청한 단체의 상당수가 전통예술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인 재해석을 가미한 기획을 보여주었다. 심의위원단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전통예술의 인식 변화와 저변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전통예술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우리 고유의 흥과 이야기를 풀어내는 장르의 본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서에서 다소 벗어난 레퍼토리를 제시하였다. 예컨대 국악 선율에 타 장르를 얹는 형태가 아닌, 국악기를 하나의 도구로써 활용하여 타 장르를 조명하는 주객전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접목을 용인하되, 기본적으로 연희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을 갖추어 전통예술의 '고유성'을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가 심의의 중요한 방향성이 되었다.

지난 사업에서 일부 단체들이 명인을 내세운 기획을 제시하고, 선정 이후 역량이 증명되지 않은 출연진들로 대거 변동시키는 경우가 여럿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심의에는 출연진 섭외여부를 평가지표로 삼았으며, 전수자보다는 이수자 위주로 구성된 단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예외적으로 국공립 소속 연주자로 구성된 단체는 예술적 수월성이 높다 할지라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단체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선정을 지양하였다.

세부분야	전통연희	국악	창작국악	창극	창작연희	기타	합계
건수(건)	10	6	7	1	1	2	27
비율	37.0%	22.2%	25.9%	3.7%	3.7%	7.4%	100%

세부분야별 선정 현황

행정결격을 제외하고 수도권 237개 단체, 비수도권 137개 단체가 63% 대 37% 비율로 지원신청 하였으며, '지역최소보장제'에 따라 수도권 17개 단체, 비수도권 10개 단체가 63% 대 37%의 동등한 비율로 최종 선정되었다. 지역 분배뿐만 아니라 전통연희, 창작국악, 창극 등 세부분야도 신청 건수에 비례하여 다양하게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순회처 관객들이 여러 지역의 흥과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을 다채로운 악가무로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매칭형 '음악 분야' 심의평

음악(클래식) 분야는 총 311건의 사업이 접수되었다. 이 중 2건의 결격 단체를 제외한 309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의 화두는 음악(클래식) 분야의 범주 설정이었다. 19년 사업은 음악 분야로 진행되었으나, 20년 사업은 음악(클래식) 분야로 한정해 접수를 받았다. 또한, 재즈 등

대중음악은 문화일반 분야에 지원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럼에도 대중음악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음악(클래식) 분야에 지원한 사업을 심의 대상으로 간주할지를 논의하였다. 심의위원은 국민이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을 균형 있게 향유할 수 있도록 클래식 음악의 공연 기회가 증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클래식 음악 단체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였다.

본 사업은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어떤 공간 변수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에 수행했던 레퍼토리가 있는 예술단체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이 취지에서 벗어나 있었다. 예산 항목의 구성에 보완이 필요한 사업도 적지 않았다. 동일 출연진이 여러 사업의 구성원으로 중복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심의위원은 사업 수행 시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사업 간 프로그램 구성이 유사한 경우는 다양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추후 본 사업에 지원하는 단체는 예산의 적절성과 프로그램의 고유성에 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이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부분야	실내악	오페라	관현악	기악	합창	중창	성악	기타	합계
건수(건)	6	6	3	2	0	1	3	0	21
비율	28.6%	28.6%	14.3%	9.5%	0%	4.8%	14.3%	0%	100%

세부분야별 선정 현황

심의위원은 21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권역 기준으로 수도권 12건(57.1%), 비수도권 9건(42.9%)의 사업이었다. 세부 분야 중 오페라는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이 1.9배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과 관객 이해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오페라 분야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였다. 선정 사업의 관객층은 청소년(32.1%)과 아동(24.5%)의 합이 전체 선정 사업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심의위원은 지원 단체가 노인·장애인 관객층에 관심이 적었던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였다. 앞으로 지원 단체가 좀 더 다양한 관객층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심의위원은 오랜 고민 끝에 선정사업을 결정하였다. 선정된 예술단체의 공연이 향유층의 삶에 의미 있게 다가가길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매칭형 '문화일반·다원예술 분야' 심의평

'다양성'이라는 큰 관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는 다원예술 분야와 문화일반 분야는 통합 심의로 진행되었으며, 통합 심의에 대한 안내는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책자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고지된 바 있다. 세부 설명을 통해 신청분야 선택 요령을 기 안내했으나, 두 분야의 특성 상 사업의 내용이 신청 건수만큼 광범위함에 따라 조작적 정의를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사무처와 심의위원단은 각 분야에 대한 범주를 설정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일반 : 타 분야(기초예술)에 포섭되지 못한 문화예술. 재즈, 힙합, 세계음악, 서커스 등 대중문화예술 포함.

○ 다원예술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비주류예술, 문화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 등을 포함. * 「다원예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12) p. 21.

위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두 분야 모두 개념적 실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순간 세상의 다양한 문화예술이 해당 정의 영역 밖으로 미끄러지며 소외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사무처와 심의위원단은 각 분야 영역에 대해 엄격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지양하고, 경계선을 희미하게 그어 다양한 문화예술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그 미래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였다.

동일한 심사위원단이 두 분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신청접수는 물론 심의 또한 두 분야를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하여 총평 또한 문화일반과 다원예술로 구분한다. 본 심의는 심의 효율과 심도 깊은 토의를 위해 심의위원단의 사전 가채점 결과 기준 상위권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심의위원단은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생각을 수정하면서 최종 선정단체를 결정하였다.

- 문화일반

문화일반 분야에는 187건이 접수되었다. 전체 신청 건수를 NCAS 기준 세부분야 차원에서 분석했을 경우 총 14개의 분야로 나뉘었으며 문화일반이 93건(49.7%)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문화일반 분야로 신청한 단체들의 사업 내용 분석 결과, K-POP, 재즈, 록 등의 공연 프로그램과 락킹, 비트박스, 비보이 등 힙합 퍼포먼스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보았을 때, 행정상의 세부분야 구분과는 별개로 대다수의 신청단체들이 콘서트 분야와 비보이댄스 분야에 대거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분야	문화일반	콘서트	비보이댄스	마술	종합	서커스	생활예술	소계
건수(건)	93	33	14	13	9	7	5	174
비율	49.7%	17.6%	7.5%	7.0%	4.8%	3.7%	2.7%	93%
세부분야	기타	무대예술	지역축제	실내악	청년예술가	코미디	해당 없음	소계
건수(건)	5	2	2	1	1	1	1	13
비율	2.7%	1.1%	1.1%	0.5%	0.5%	0.5%	0.5%	7%

세부분야별 신청 현황(문화일반)

문화일반 분야는 총 14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심의위원단의 심의 결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몇 개의 단체들이 전년도 평가 결과 환류 후 최종 결과에서는 선정권에 들어왔는데, 이 단체들은 모두 최우수 점수인 S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예술단체가 지원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 계획이 실질적인 공연 진행과 성과로 잘 이어지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세부분야로 보면 문화일반 6건(43%), 비보이댄스 5건(36%), 서커스, 종합, 콘서트가 각각 1건씩 총 3건(21%) 순으로 선정되었다. NCAS 상 세부분야를 문화일반으로 선택하였으나 사업 주요내용이 비보이댄스인 단체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보이댄스 단체의 선정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이다. 가채점 결과 사전분석을 통해 세부분야 간 균형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비보이댄스 단체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세부분야	문화일반	비보이댄스	서커스	종합	콘서트	합계
건수(건)	6	5	1	1	1	14
비율	43%	36%	21%	21%	21%	100%

세부분야별 선정 현황(문화일반)

<신나는예술여행(매칭형)>이 예술단체와 순회처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층을 고려한 기획이 눈에 띄는 몇몇 단체는 사업구체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득했다. 지원신청서 상의 사업 계획이 실질적인 공연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기획안의 구현가능성 또한 평가에 있어서 주된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예산의 구체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심의위원단 모두 동의하였다. 1회당 500만원으로 정액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기 안내된 항목별 예산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차료 등 특정 항목의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서 불투명한 산출내역을 기입한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의위원단은 이 단체들이 선정되더라도 사무처 차원에서 컨설팅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사업 기획의 독창성과 단체의 수행역량의 균형 또한 주된 논의 주제였다. 단체의 기존 레퍼토리가 지닌 권위와 전통은 존중하나, 과거 명성에 안주하거나 타 유사사업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을 답습함으로써 창의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단체들에 대해서 일부 심의위원은 매너리즘을 이유로 사업타당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때 심의위원단은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예술단체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

- 다원예술

다원예술 분야는 212건이 접수되었으나, 이중 1건은 심의 기준 상 행정결격 처리되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최종 심의 대상은 총 211건으로 결정되었다. 전체 211건 중 82건(3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융복합형 단체들의 사업내용은 주로 영상이나 소리를 퍼포먼스와 함께 비중 있게 다루거나, 우리나라 전통예술과 서양의 클래식, 재즈 등의 장르를 혼합하는 등 하나 이상의 장르를 하나의 공연으로 구성하는 공통 양상을 보였다.

세부분야	융복합형	복합	대중	기타	실험	합계
건수(건)	82	70	34	22	3	211
비율	38.8%	33.1%	16.1%	10.4%	1.4%	100%

세부분야별 신청 현황(다원일반)

다원예술 분야는 총 15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단체들은 <신나는예술여행> 사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향유 대상층이 분명한 공연 주제와 형식을 구성하면서도, 국악과 무용, 마술, 연극,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일체감 있게 풀어내어 공연 방식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보이는 등 다원예술이라는 신청분야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다원예술 분야도 문화일반 분야와 마찬가지로 단체가 제출한 예산안과 사업 구성이 사업의 구체성을 평가하는 데에 주된 근거가 되었다. 사업 규모 대비 임차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단체는 예산편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득했으며, 사업대상층이 분명해 순회처의 수요가 높을 것 같은 단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원예술이라는 분야 특성상, 기존 장르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가 없는 단체들이나, 사업내용이 한 장르에 편중되어 전통예술이나 문화일반 등 타 분야에 적합해 보이는 단체들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매칭형 심의위원 일동

Ⅱ. 기획형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기획형)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ㅇ 지원 방향 및 취지

<기획형> 사업은 예술단체가 비교적 큰 예산을 가지고 장소를 직접 발굴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민과 함께 펼쳐나가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68개의 예술단체가 3,481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491,337명의 관객을 만났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에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지역문화재단 등이 주관한 공공주도형 사업과 같은 세부사업들을 폐지하고 유형을 단순화하였다는 데 있다. 그리고 전년까지 매칭형 사업에서 지원되었던 시각예술분야 사업을 <시각순회>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여 기획형으로 이관, 확대한 것이다.

ㅇ 심의방법 및 절차

기획형 심의절차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 1단계(심의 약2주전) '사전검토제' 2단계 '서류 심의' 3단계 '그룹 인터뷰 심의'(문학순회 제외) 및 최종 채점으로 진행되었다. 매칭형이나 청년형과 달리 '그룹 인터뷰 심의'가 진행된 것은 기획형 사업 심사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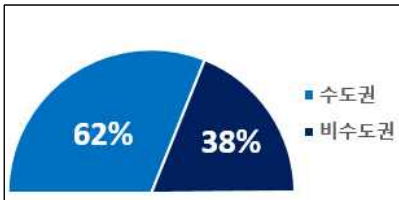
우선 1단계인 '사전검토제'에서는 심의일 약 2주 전 사무처로부터 전달받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의기준별 채점(A~E)을 하고 그 근거를 서술하였다. 이는 심의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히 지원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무처에서 고안한 장치로 심의 당일에 심의위원들은 각 단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토의에 임할 수 있었다. 이는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실한 검토로 인한 각 지원신청서에 대한 인상비평을 자제하고, 심의 당일 토의과정에서 특정 심의위원의 주관적이거나 부실한 견해에 다른 위원들이 쉽게 동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

심의 당일 오전에 이루어진 2단계 서류심의는 사전 검토 및 채점결과 공통적으로 상위에 랭크된 단체 위주로 효율적인 토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아울러 동일한 단체임에도 심의위원간 사전 채점 편차가 큰 단체의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을 요청하여 들어봄으로써 본 사업의 심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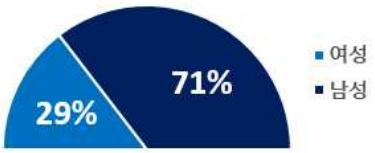
심의위원별로 의문점이 있었던 사업기획안은 '그룹인터뷰'를 통해 상당수 해소될 수 있었다. 그룹인터뷰는 여러 단체가 조를 이루어 진행되었다. 심의에 참여한 단체는 차례대로 1분간 본인이 기획한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이후 심의위원들의 개별 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은 주로 장소섭외와 관련한 지자체 협조나 실현 가능성

여부, 참여진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 요청, 과다 책정된 예산항목에 대한 구체적 사용 계획 등 주로 서류검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확인하는 것들이었다. 이미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이전 사업과의 차별점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확인 과정을 통해 서류검토까지는 상위권에 랭크되었던 단체가 최종 채점에서는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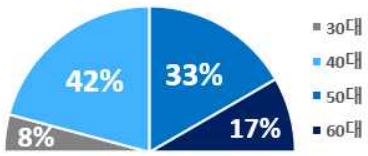
인터뷰는 심의에 참여한 일부 단체들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듯 특정 단체에 대한 질문이 집중된다고 하여 특별히 심의에 유·불리가 있지 않았음을 밝힌다. 흥미로운 사업이기에 질문이 쏟아진 단체도 있었지만 예상되는 문제 때문에 질문이 집중된 단체도 있었다. 그리고 심의위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우수하다 여긴 단체의 경우 오히려 질문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룹 인터뷰가 끝난 이후 심의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해소된 답을 통해 각자 온라인 채점을 진행하였고, 최종 순위는 심의시스템 관리팀을 통해 전산 집계 처리되어 그 자리에서 공유되었다.



기획형 심의위원단 **'지역'** 구성



기획형 심의위원단 **'성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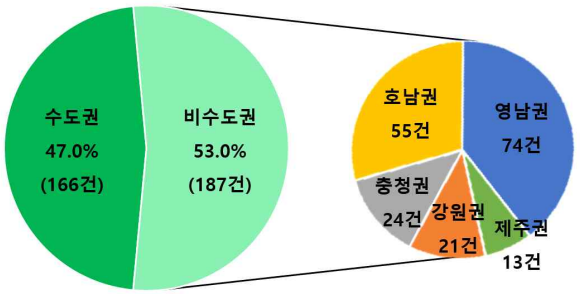


기획형 심의위원단 **'연령'**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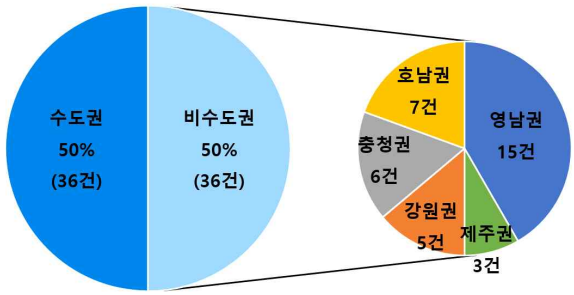
심의위원 구성은 예술위 2020온라인 심의위원 pool에서 5배수로 무작위 순위 추첨된 리스트를 가지고 지역, 성별, 신진 안배(심의별 최소 1인 이상)를 고려하여 위촉하였다. 당초 사업별 7인(농산어촌마을순회 및 지역자원연계사업은 공동 심의/ 문학순회 심의위원은 5인구성)의 심의위원단을 구성하였으나, 개인상의 이유로 미참여한 2인을 제외 최종 24인의 심의위원이 <신나는예술여행(기획형)> 지원심의를 진행하였다.

○ 선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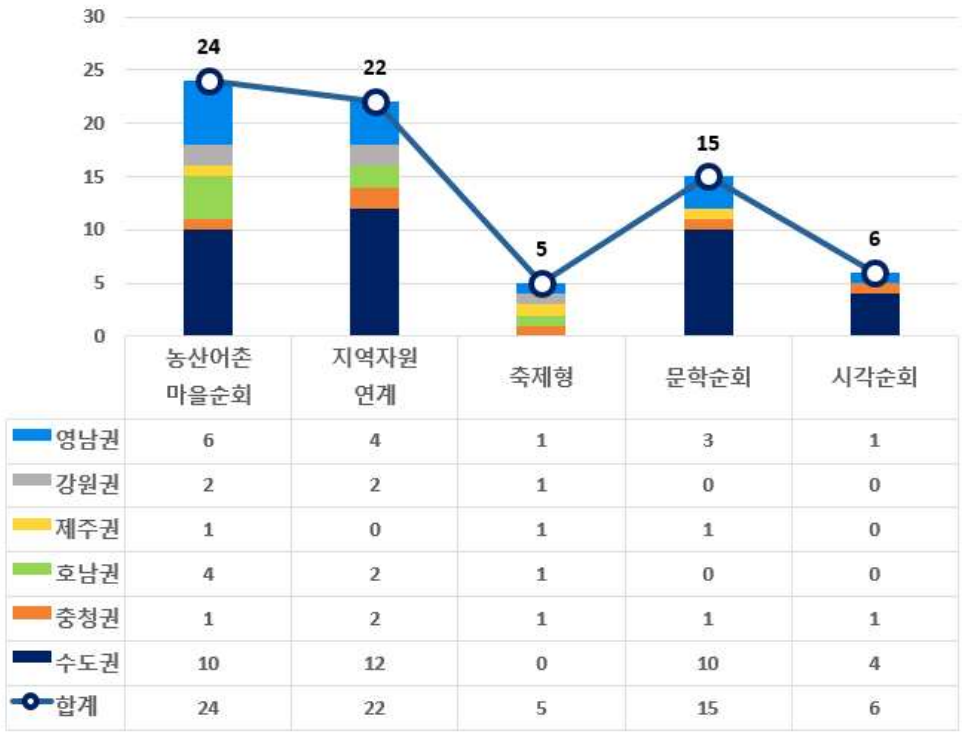
올해 <신나는예술여행(기획형)>은 단체 소재지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단체의 신청대비 선정비율을 가능한 동등하게 유지하여 비수도권 지역 예술단체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지역최소보장제'라는 이름하에 시행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거의 비슷한 비율인 50%대 50%로 지역적 균형을 유지하였다. 이 같은 지역안배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각 단체의 예술성을 우선적으로 살펴본 뒤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



기획형 지원(353건) '단체 소재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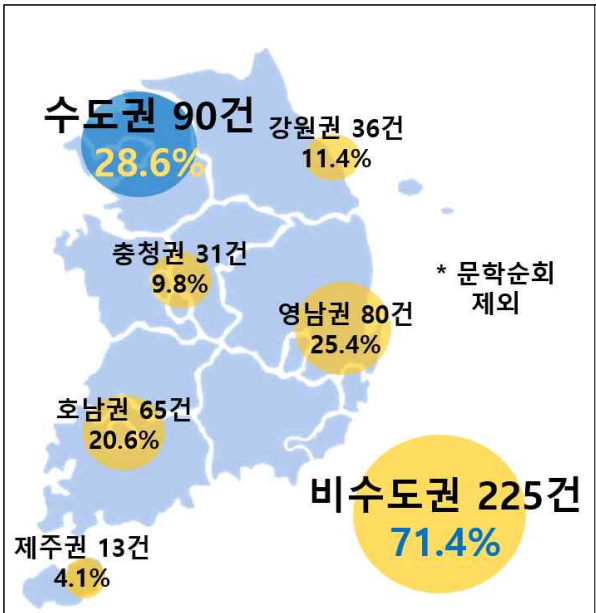
기획형 선정(72건) '단체 소재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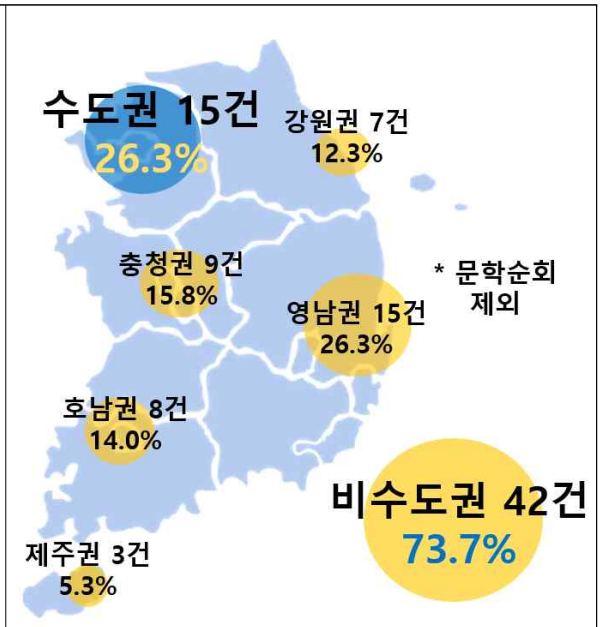
	농산어촌 마을순회	지역자원 연계	축제형	문학순회	시각순회
영남권	6	4	1	3	1
강원권	2	2	1	0	0
제주권	1	0	1	1	0
호남권	4	2	1	0	0
충청권	1	2	1	1	1
수도권	10	12	0	10	4
합계	24	22	5	15	6

선정 단체(72건) 소재지 현황

한편, 사업대상지 비율이 비수도권이 73%에 이르는 것(*권역별 대상지를 구분하지 않은 문학순회 사업은 제외)은 문화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본 사업의 취지를 예술단체가 수긍하여 신청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기획형 신청 단체(315건) 사업대상지 현황
(* 문학순회는 전국대상 사업으로 제외)



기획형 선정 단체(57건) 사업대상지 현황
(* 문학순회 전국대상 사업으로 제외)

이 같이 선정된 기획형 사업의 세부사업별 지원취지 및 주요 개편 방향, 그리고 심의결과는 다음으로 이어진다.

■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기획형) 농산어촌마을순회/지역자원연계

ㅇ 일시 : (1차)2020년 1월 20일(월) 10:00-18:30
(2차)2020년 1월 30일(목) 10:00-20:00

ㅇ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층 중회의실 및 3층 대회의실(전남 나주 본관)

ㅇ 심의위원 : 노재윤, 박성희, 박찬영, 신영환, 이건왕, 이찬영, 장용석 (7인)

ㅇ 사업 지원취지 및 주요 개편 방향

농산어촌마을순회와 지역자원연계 사업은 수준 높은 기초예술을 기반으로 한 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잠재적 관객을 직접 발굴함으로 문화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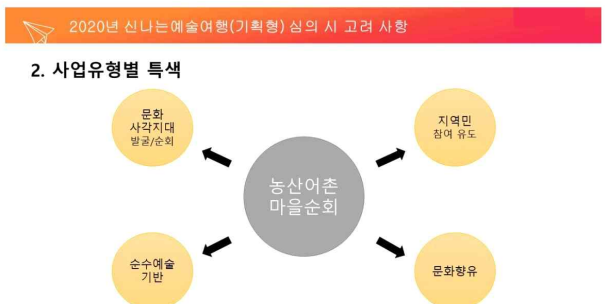
이번 기획형 사업 중 농산어촌마을순회 및 지역자원연계 사업은 기존 5가지 세부 유형의 사업을 2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기존 공공주도형 사업을 폐지하여 민간 예술단체의 지원 기회를 넓히고 보다 많은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다.

작년에는 지원신청액에 따라 프로그램 횟수를 지정하여 선정하였으나 올해는 1억원 정액 이라는 예측 가능한 예산 안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횟수를 정하도록 하여 좀 더 다채로운 규모와 형태의 사업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농산어촌마을순회 사업은 농산어촌 마을을 직접 발굴하여 순회하는 사업이지만, 지역자원연계 사업은 지역 및 장소적 거점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앞서 논한 사업 취지 및 특색에 따라 본 심의를 통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기획인가, 발굴하고자 하는 관객대상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가, 관객대상의 니즈를 반영하여 구현가능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는가, 마지막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관객 발굴과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역량을 갖춘 단체인가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고자 했다.





ㅇ 심의 접수현황

농산어촌마을순회 및 지역자원연계사업은 전년대비 33%가량 하락한 226건(농산어촌마을순회 117건, 지역자원연계 : 109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2020년에 신설된 사업유형(기획형-시각순회, 청년형-사회문제해결형)으로 장르적 특성과 사업내용의 특성 등에 따라 분산 지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농산어촌마을순회/지역자원연계 신청현황							
사업권역	단체소재지						권역합계
	수도권	강원권	영남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	66	-	-	-	-	-	66
강원권	13	15	-	-	-	-	28
영남권	10	-	50	-	-	1	61
제주권	1	-	-	9	-	-	10
충청권	6	-	-	-	17	-	23
호남권	8	-	1	-	-	29	38
소재지합계	**104**	**15**	**51**	**9**	**17**	**30**	**226**

또한 전체 지원신청 중 사업대상지와 단체소재지가 일치하는 경우는 82.3%(226건 중 186건에 해당)로 매우 높았다. 이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단체들이 신청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ㅇ 심의 진행과정

약 2개월 동안 전수검토제 및 사전 온라인 가채점을 시작으로 1차 서류심의,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심의위원 7인 간 심층적 토의를 거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권역별 심의를 통해 지역적 안배와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했다.

공모 접수 이후 심의 위원 7인은 전수검토제 적용방침에 따라 1개월 동안('19.12.30-'20.1.30) 지원신청서별 검토의견을 작성하였으며 사전 온라인 가채점을 병행하여 지원단체의 고민과 역량을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졌다.

226건의 지원접수 건 중 지원신청서 미첨부, 사업유형 선택오류와 같은 지원신청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아 결격으로 처리된 7건을 제외한 219건을 대상으로 1차 지원심의가 이루어졌다.

사전 온라인 가채점 결과에 대해 예술위 사무처는 심의위원별 채점현황을 분석하였고 심의 당일에는 해당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논의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1차 지원심의를 통해 총 219건의 지원신청 중 권역별 신청 비중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대비 2배수가 조금 안 되는 단체를 2차 지원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차 서류 지원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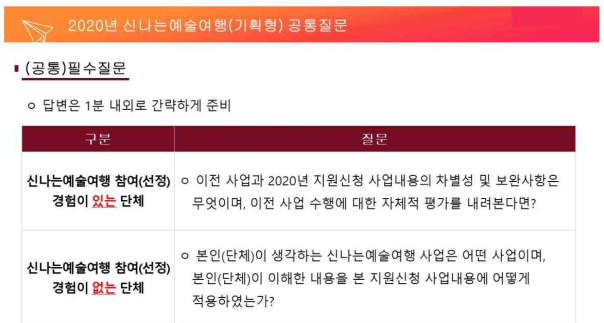


<2차 인터뷰 심의>

인터뷰 심의는 한 예술단체 당 최대 2인까지 배석하였으며 권역별 5-7개의 예술단체를 한 조로 구성하여 조당 약 3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총 78개의 예술단체에서 129명이 참석해 주셨다.

예술위 사무처에서는 2차 지원심의 대상단체에 심의 전 본 사업 참여 경험 유/무로 구분한 공통질문을 준비하여 미리 답변을 준비해 오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진행방식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뿐 아니라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한 사업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약 8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작년까지는 발표심의(PT심의)로 진행해왔던 2차 지원심의를 올해는 조별 인터뷰 심의로 변경하였다. 이는 그룹에 참여한 예술단체들이 답변을 함께 청취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업과 의견에 대해 상호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었다. 인터뷰 시 이미 지원신청서를 통해 확인된 사업내용을 재언급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에 공을 들였고, 이미 전년도에 본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대상자일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보완점에 대해 답변함으로써 단체의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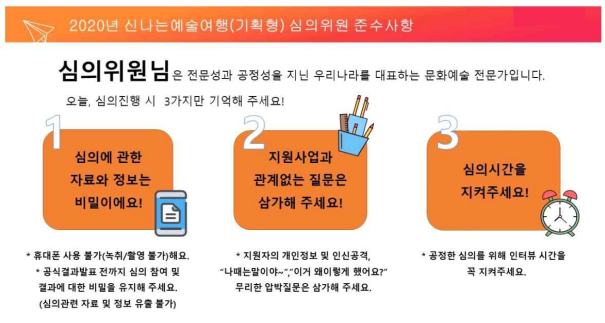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기획형) 공통질문

▪ (공통)필수질문

○ 답변은 1분 내외로 간략하게 준비

구분	질문
신나는예술여행 참여(선정) 경험이 있는 단체	○ 이전 사업과 2020년 지원신청 사업내용의 차별성 및 보완사항은 무엇이며, 이전 사업 수행에 대한 자체적 평가를 내려본다면?
신나는예술여행 참여(선정) 경험이 없는 단체	○ 본인(단체)이 생각하는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본인(단체)이 이해한 내용을 본 지원신청 사업내용에 어떻게 적용하였는가?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기획형) 심의위원 준수사항

심의위원님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전문가입니다.

오늘, 심의진행 시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 심의에 관한 자료와 정보는 비밀이에요!

* 휴대폰 사용 불가(녹취/촬영 불가)해요.
* 공식결과발표 전까지 심의 참여 및 결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 주세요.
(심의관련 자료 및 정보 유출 불가)

2 지원사업과 관계없는 질문은 삼가해 주세요!

* 지원자의 개인정보 및 인신공격, "나때는말이야~","이거 왜이렇게 했어요?" 무리한 압박질문은 삼가해 주세요.

3 심의시간을 지켜주세요!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인터뷰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차 지원심의-인터뷰 대상자 공통질문〉 〈2차 지원심의-심의위원 준수사항〉
수행 역량 등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단체일 경우, 심의위원이 부여한 점수 80%와 이전년도 사업평가결과 20%를 환류, 적용하여 최종점수를 도출하였으며 2019년 참여경험이 없는 단체일 경우 심의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100% 적용하여 최종 선정 단체를 확정하였다.
2019년 사업평가에 대한 환류 결과, 선정권 내에 위치한 단체가 전년도 낮은 평가등급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선정권에 위치한 단체가 전년도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아 선정권 내에서도 상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이는 본 사업에 있어 예술단체의 사업운영 역량이 본 사업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ㅇ 심사평 요약 및 소회

농산어촌마을순회의 경우, 사업수행을 하고자 하는 권역 및 관객 대상에 대한 사전조사와 축적해온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객 대상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한 우수한 사업들이 눈에 띄었다. 더불어 본 사업을 수행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인적구성,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을 갖춘 단체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지역자원연계에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역사적 사건 및 위인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장르 특화 프로그램(춘천-마임, 대구-문학 등), 해당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예술적 접근을 시도한 다양한 기획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지원단체들의 지역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정의에 대해 깊은 고민들을 한 흔적이기도 하며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우수한 기획들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준비해왔던 다양한 기획사업을 실현시켜보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본 사업의 목적 및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본 사업은 발굴하고자 하는 지역 및 장소, 관객에 대한 깊은 이해, 접근방식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사업에 대한 단체의 이해도와 역량이 들어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장소적 개념으로 학교나 마을회관 등의 기관 및 시설은 활용하기 좋은 공간이지만 단순히 특정 기관 및 시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획은 타 유사 사업과 차별성도 없을 뿐더러 문화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역의 문화향유권을 신장하고자 하는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획의도나 관객발굴에 대한 계획이 참신하더라도 생활문화, 예술교육이나 단순체험에 치중된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간 연계성이 없는 단순 나열식 프로그램은

고착화된 향유사업의 연장에 있다고 보인다. 기존 일방적인 제공으로 이루어졌던 향유사업에 대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업 수행의 주체로서 관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기초예술 영역에 대한 관객의 이해와 긍정적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향후 예술위 사무처와의 협의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더욱 적합한 형태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문화향유권 증진과 문화양극화 해소 기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얻길 바란다.

끝으로 본 사업 공모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내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단체에 유감을 전한다.

농산어촌마을순회 선정결과



선정단체 소재지	선정 건수	선정비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0	41.7%
지역	14	58.3%

사업권역	심의건수	선정건수	선정률
강원권	18	4	22.2%
수도권	20	4	20.0%
영남권	34	7	20.6%
제주권	6	1	16.7%
충청권	11	3	27.3%
호남권	25	5	20.0%
합계	114	24	21.1%

지역자원연계 선정결과



선정단체 소재지	선정 건수	선정비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2	54.5%
지역	10	45.5%

사업권역	심의건수	선정건수	선정률
강원권	8	2	25.0%
수도권	45	9	20.0%
영남권	25	6	24.0%
제주권	4	(적격자 없음)	-
충청권	12	3	25.0%
호남권	11	2	18.2%
합계	105	22	21.0%

농산어촌마을순회/지역자원연계 심의위원 일동

■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기획형) 축제형

ㅇ 일시 : 2020년 1월 21일(목) 10:30~18:00

ㅇ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관 2층 중회의실(전남 나주 본관)

ㅇ 심의위원 : 장지영, 최영갑, 김현주, 박광필, 장정진 (5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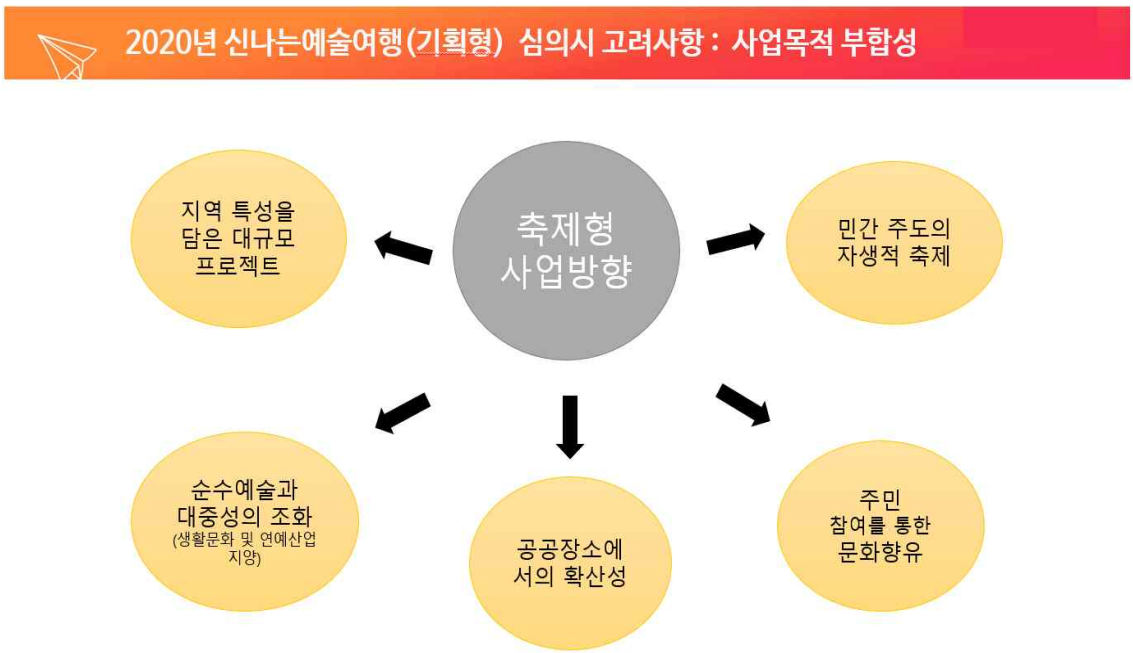
ㅇ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축제형 사업은 지역사회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타 유형에 비해 향유의 확산성을 높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중심의 축제가 범람하는 기존 상황에서 민간예술단체가 자생적으로 기획 및 운영하는 축제를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원접수결과 각지에서 49개 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었는데, 민간 주최 및 자본으로 축제를 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대부분 소규모 프로젝트가 기존 실적으로 접수되었다.

사업대상지 기준 권역별 접수현황을 보면 수도권 12건, 강원권 5건, 충청권 4건, 영남권 12건, 호남권 14건, 제주권 2건으로 비수도권 신청이 75.5%를 차지하였고, 대부분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들이었다.

ㅇ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



지원신청서 심의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것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라는 형식에 걸맞게 공공장소에서의 확산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보았다. 향유대상자가 소수에 국한된 사업은 기획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주최측 일방의 행사가 아닌 주민참여를 통한 문화향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셋째, 대중적인 향유를 위한 모객효과를 고려하였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엔터테인먼트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기초예술을 기반으로 지역성을 담은 축제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중가수출연이나 단순 코스튬 플레이 등이 주된 프로그램이 되는 축제들은 배제되었다.
넷째,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그 중 1개 권역을 사업대상지로 기재하도록 한 만큼, 선정에 있어 지역 안배도 고려였다. 그 결과 강원권 1건, 충청권 1건, 호남권 1건, 영남권 1건, 제주권 1건, 총 5곳이 선정되었다. 특히 선정에 있어 해당 권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단체를 발굴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위 5곳 모두 해당 지역 소재 예술단체가 선정되었다.



인터뷰 참가자 대기실



그룹 인터뷰 심의 진행

ㅇ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 및 소회

본 사업은 최소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대다수 단체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책정하여 신청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획의 면면을 보면 신청한 만큼의 예산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항목들이 있었기에 선정 단체 대부분 최종 지원 결정액은 신청금액의 70%내외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그 결과 총 지원금 8억원에 5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특이 할 만한 사항은 작년 본 사업을 통해 처음 발굴 되었던 3개 사업이 올해도 연속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올해 지원신청서 대부분 기존 실적이 소규모 공연에 불과해 '축제'로 발돋움 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은 데 있다. 또한 규모를 갖춘 행사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거나,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적기금 지원은 불필요해 보이는 사업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을 유지하며 의미있는 축제를 진행해온 사업 2건을 신규 발굴 할 수 있었다.



이미 작년에 위원회 기금을 받으며 틀을 다듬었을 기존 축제는 '20년도 한 차례 더 부여받은 지원을 통해 도약기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올해 신규 참여한 2개 단체도 기존에 만들어오던 작은 축제의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번 기금지원을 통해 더 규모 있게 만들어 온 국민이 함께 신나는 예술여행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본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기를 희망한다.

축제형 심의위원 일동

■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기획형) 시각순회

ㅇ 일시 : 2020년 1월 16일(목) 10:00-18:00

ㅇ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층 중회의실(전남 나주 본관)

ㅇ 심의위원 : 강철희, 고원석, 곽풍영, 김정현, 이정훈, 장경화, 한성필 (7인)

ㅇ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신나는예술여행 <시각순회> 사업은 시각예술분야의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는 기존 매칭형 사업 내 시각예술분야 지원이 이관, 확대된 것으로 당초 '18-19년도에는 매칭된 시설(학교, 노인회관 등)에서 단시간 진행되면서 평이한 수준의 미술 체험 교육에 그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총 40개 팀이 신청하였는데, 본 사업에서 희망했던 바대로 예술단체가 시설이나 지역을 직접 발굴하여 좀 더 시간을 두고 관객과 소통하며 특정 주제의식을 반영한 밀도 있는 기획이 상당수 차지하였다. 하지만 기존 신나는예술여행 매칭형 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문화지원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역 문화센터에서 진행할 법한 생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짧은 시간 다회차 단순 반복하는 기획안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아쉬움을 자아냈다.

사업대상지를 기준으로 권역별 접수현황을 보면 수도권 12건, 강원권 3건, 충청권 4건, 영남권 7건, 호남권 13건, 제주권 1건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3:7로 비수도권 신청이 70%를 차지하였다. 이는 대다수 예술단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화향유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본 사업의 취지를 예술단체가 수긍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ㅇ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

심의에 있어 중점을 둔 방향은 사전에 공표된 공고문에도 명시되어 있듯, '주민과의 교감'을 전제로 '역량 있는 단체'가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획'을 했는지가 주요 고려사항이 되었다. 예술성이 뛰어나더라도 지역주민이나 관객의 향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기획이거나, 반대로 특정 관객의 니즈를 잘 반영한 기획이라 하더라도 예술성이나 참여진의 역량이 담보되지 않은 기획은 배제하였다.

그리고 시각순회사업인 만큼 공연이나 퍼포먼스보다 시각예술분야에 집중한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향유의 측면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경직되어 장르를 구분하기 보다는 향유권 충족의 측면에서 공연이나 강연 등이 효과적으로 결합된 경우는 심의에서 배제하지 않고 열린 토의를 진행해 나갔다.

아울러 지원신청 시,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중 1개 권역을 사업대상지로 기재하도록 한 만큼, 지역 안배도 고려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당 권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단체를 발굴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2개, 영남권 1개, 충청권 2개, 제주권 1개 단체로 총 6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이 중 해당 지역 소재 예술단체가 선정된 것은 5개 단체로 83.3%을 차지하였다. 호남권 예술단체도 1개 팀이 선정 되었으나 전년도 참여 예술단체이기에 19년도 내부 평가결과 점수를 20% 환류한 결과 근소한 차이로 선정권에서 탈락하고, 수도권 차점 단체 1곳이 최종 선정되었다. 기존 참여 단체의 경우 당해년도 사업 수행 역량이 차년도 선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터뷰 참가자 대기실



그룹 인터뷰 심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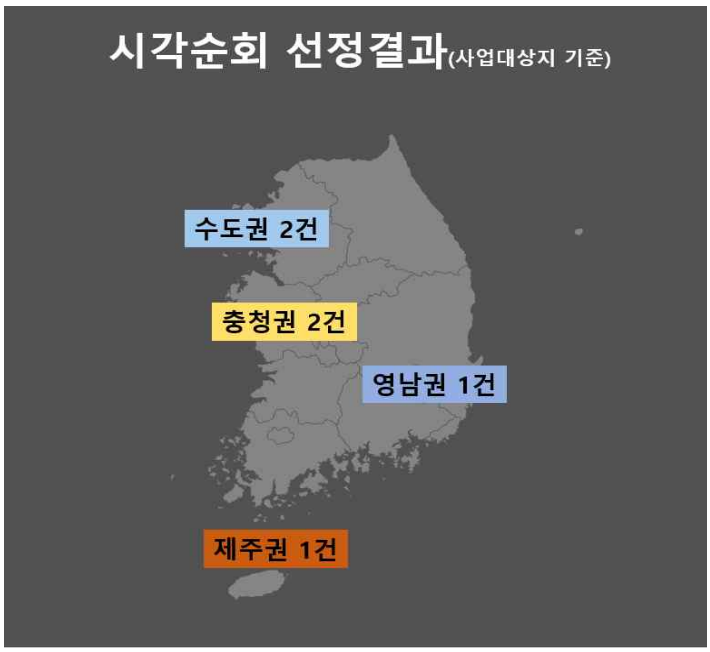
ㅇ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 및 소회

본 사업은 최소 1억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었으나 선정권에 포함된 대다수 단체가 1억원 혹은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신청하였기에 지원금액을 1억원으로 통일하였다. 그 결과 총 지원금 6억원에 6개 단체를 뽑게 되었다.

선정된 단체의 면면을 보면 제각기 독특한 주제와 진행방식을 보이고 있어 공통점을 꼽기가 어렵지만, 매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사진, 사운드 아트, 목판화라는 특정 매체에 집중된 형식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그룹(아날로그룸, 노드트리, 대장경문화학교)과 매체 구분이 없으며 진행방식 또한 전시, 퍼포먼스, 워크숍, 강연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그룹(올댓큐레이팅, 컬쳐솔루션, 국제통합예술교육협회)로 구분해볼 수 있다.

찾아가는 지역이나 시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외딴 섬(아날로그룸)을 찾아가거나 도심 속 평생학습관 등(컬쳐솔루션)을 찾아가는 상반된 경우가 있으며, 대상 또한 특정 마을 커뮤니티에 깊게 파고들어 진행되는 프로젝트(노드트리, 아날로그룸)와 여러 곳을 순회하며 느슨하고 일시적인 커뮤티니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대장경문화학교, 올댓큐레이팅 등) 등 단체간 차이를 보인다. 또한 현대미술의 최전방(노드트리, 올댓큐레이팅)을 선보이는 단체가 있는 반면 오래된 전통문화유산을 알리고 체험을 기획한 단체(대장경문화학교)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선정된 단체 모두 전문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달리 예술가들이 주민을 직접 찾아간다는 것, 그리고 '만지지 마시오'로 대변되는 미술관 전시의 일방적이고 거리를 둔 방식이 아닌 매 순간 관객과 예술가가 함께 호흡하고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올해 다양한 매체, 지역, 접근 방식을 통해 진행될 시각순회사업은 예술가가 전국을 여행하듯 찾아가 온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본 사업 소기의 목적을 각자의 개성 있는 접근을 통해 달성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는 '생활문화' 가 아닌 감동이 있는 '예술'이 담겨있기를 희망한다.

시각순회 심의위원 일동

■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기획형) 문학순회

ㅇ 일시 : 2020년 1월 29일(목) 14:00-18:00

ㅇ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중회의실(전남 나주 본관)

ㅇ 심의위원 : 김윤미, 김윤정, 이명원, 이은봉, 전동균

신나는 예술여행 문학순회 지원심의는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사전 심의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의 본심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전심의에서는 신청사업 모두에 대한 전수평가와 가채점이 각 심사위원별로 이루어졌으며, 본심의에서는 각각의 지원 심의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위원 전원의 사업별 의견과 검토가 이루어졌다.





심의에 임하면서 심사위원들이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사업취지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학기행'이라는 내용과 대중들/시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충족시키는 사업이 아닌 경우, 감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업 기획안 자체의 탁월성을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서울과 지역 예술단체 간, 아동청소년 문학과 성인문학 간, 주류장르와 소수장르의 균형과 상대적 안배에도 관심을 갖고 심의에 임했다. 물론 기계적 균형만을 염두에 두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셋째, 기획안 자체는 완성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가의 여부 역시 심의 과정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넷째, 예산부문에 있어서도 그것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의 여부 역시 심의의 평가지준이 되었다. 강사료나 인건비 항목이 지나치게 높게 혹은 낮게 평가되었는지의 여부, 문학기행의 취지와 무관하게 작품집의 인쇄, 출판 비용이 높은 경우, 혹은 예산항목의 표준경비를 현저하게 벗어난 예산지출 등도 검토하여, 평가 및 예산항목과 비용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섯째, 2019년 이전에 동일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예술단체의 경우, 이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2020년도의 사업계획과 함께 종합하여 심의를 진행했다. 2020년 지원기획안 자체는 완성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2019년의 사업평가와 종합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획안과 실제 사업수행 상의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

심의를 진행하면서 심의위원들은 각 지원사업 전건에 대해 심의위원 전원이 평가의견을 개별적으로 개진 및 채점하였고, 혹 심의위원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단체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피를 통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만전의 노력을 기했다. 예산 조정의 경우에는 예산항목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나 소모성 경비의 과다 등의 문제가 있다면 조정했으며, 대체적으로는 신청단체의 경비소요가 합당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기준과 심의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2020년도 신나는 예술여행 문학순회 사업 선정작을 결정하였다. 선정된 단체들이 문학순회를 통해 예술가와 시민 모두의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뜻깊은 활동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문학순회 지원심의위원 일동

Ⅲ. 청년형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청년형) 심의진행 경과 및 심사평

ㅇ 일시 및 장소

구분	심의일정	심의장소	
강원권	2.12.(수) 14:00	춘천	춘천 공연예술연습공간 대연습실4(B동 2층)
수도권	2.18.(화) 10:00	서울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영남권	2.20.(목) 10:00	대구	대구예술발전소 3층 세미나실
제주권	2.24.(월) 14:00	제주	제주 영상·문화산업진흥원 중회의실
충청권	2.14.(금) 10:00	대전	대전 예술가의집 다목적회의실
호남권	2.10.(월) 10:00	나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층 대회의실

ㅇ 분야 : 문화일반

ㅇ 심의위원 : 총 36인

구분	총 36인 : 위원회 섭외 5인 + 지역 문화재단 추천 31인				
	(공통)위원회 섭외 심의위원	소계	지역 문화재단 추천 심의위원	소계	총계
강원권	김한신, 남정숙, 신현진, 임종우	4	변유정, 윤혜정	2	6
수도권	김한신, 남정숙, 신현진, 임종우	4	권근영, 심소미, 안희석, 오미현, 정지선, 최선영	6	10
영남권	김한신, 남정숙, 신현진, 안지혜	4	권미애, 문민영, 박승환, 양주원, 이현혜, 임영재, 정숙희, 최원준	8	12
제주권	김한신, 남정숙, 신현진, 안지혜, 임종우	5	김연주, 김진철	2	7
충청권	김한신, 신현진, 안지혜, 임종우	4	김선욱, 김인경, 박홍순, 배주옥, 이중욱, 정규현, 정지은, 정창석	8	12
호남권	김한신, 남정숙, 신현진, 안지혜, 임종우	5	김광훈, 김유미, 박영준, 양정인, 유상록	5	10

* 지역 문화재단 추천 섭외 심의위원은 당초 34인으로 구성하였으나, 개인사정 상 불참 3인 발생으로 총 31명이 참여함

ㅇ 지원취지 및 사업 주요 개편 방향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청년형)’ 사업은 역량 있는 예술단체가 수준 높은 예술 프로그램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온 국민이 수준 높은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사업목적을 골자로 **청년예술가의 ‘일거리’ 창출이 주목적**인 사업이다.

정책 흐름과 예산 성격이 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예술 현장에서 말하는 일자리보다는 활동할 거리, 즉 예술 활동이 많아지기 위한 바람을 담아 일자리와 일거리를 병기하여 세부 유형인 <일자리(일거리)창출형>을 설계하였다.

또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대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사회문제해결형>을 설계하였다. 예술이 가진 영향력과 파급력은 예술 활동의 주체자를 넘어 향유자, 공동체, 사회에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최근 경향에 비춰 청년예술가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예술의 기여도와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좀 더 자세히 작년과 달라진 올해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청년형) 달라진 점은?

구분	2019	2020
유형	신나는예술여행(청년예술형)	**일자리(일거리)창출형** **사회문제해결형** *시범사업
사업예산	30억	**67.5억**
선정단체수	43건 (수도권 14, 충청권 8, 호남권 7, 제주권 3, 강원권5, 영남권6)	**약 80~90건**
프로그램 1회당 예산	약 130만원	**250만원(정액)**
제한사항	참여자 중, 출연진만 청년층 (만 19세 이상~39세 미만)으로 제한	**참여자 전원 청년층(대표자 포함)** * 단, 사회문제해결형의 경우 기획행정, 제작진, 자문인력은 제외

첫째, 타 유형에서는 사업예산이 삭감됐지만 청년형은 유일하게 39억원이 증가하여 작년 선정 건수 대비 2배 이상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청년예술가의 열정페이를 부추길 수 있는 기존의 낮은 회당 예산을 두 배 가까이 증액('19년도 130만원→'20년도 250만원)하여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조성하였다.

셋째, 대표자를 포함한 참여자 전원을 청년층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성 단체와의 경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영역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예술가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사회문제해결형>의 경우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가의 참여도 일부 허용)

○ 지원 접수 현황

올해 공모에는 전년 신청 건 수(221건) 대비 약 72%가량 상승한 379건이 접수되었다. 유형별로는 <일자리(일거리)창출형> 261건, <사회문제해결형> 118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타 유형 중복지원(1건), 유형 선택오류(4건), 지원신청 부적격(1건), 신청 제한사항 미준수(7건) 등 총 13건의 결격 건을 제외한 총 366건을 대상으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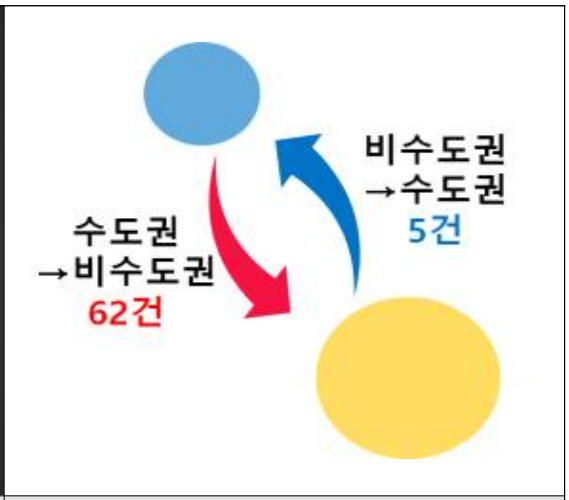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청년형> 권역별 접수현황

권역별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제주권역을 제외한 전 권역의 접수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권역별 접수건수 비율의 경우 수도권(38.5%→39.6%), 영남권(16.7%→19%), 충청권(15.8%→16.1%), 호남권(12.2%→14.5%)은 증가했지만 강원권(11.8%→8.4%), 제주권(5%→2.4%)은 하락하였다.



신청단체 소재지 현황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단체의 교차 신청현황

신청단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접수현황의 경우 수도권 소재 단체가 비수도권 권역에 신청한 건이 전체 접수 건수 중 16.4%(62건)를 차지하였고, 수도권 소재 단체의 총 신청 건수 207건에 대비 3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소재 단체가 수도권에 신청한 건수는 5건에 그쳤다. 비수도권 단체의 경우 단체의 거점 권역으로 신청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전체 비수도권 소재 단체의 신청 건수 172건 중 약 95%에 해당하는 163건이 단체 소재지 권역으로 신청된 건이었다.

이를 통하여 수도권 소재 단체는 전국 권역을 사업 대상지로 고려하는 편이나, 비수도권 소재 단체는 단체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찾아가는 심의’ 진행 과정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청년형)’은 ARKO 비전 2030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최초 시도로서 예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별 균형적인 공공기금 지원을 위한 기본 여건을 마련하고자 6개 권역별 ‘찾아가는 심의’로 진행되었다.

❖ **권역별 협력 문화재단 (17개)**

구분	재단명	소계
강원권	강원문화재단	**1**
수도권	서울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3**
영남권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북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울산문화재단	**5**
제주권	제주문화재단	**1**
충청권	대전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4**
호남권	광주문화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	**3**

권역별 협력 광역문화재단

2019년 11월, 4개 권역(강원권-춘천, 호남권-순천, 충청권-대전, 영남권-울산)을 찾아가 ‘찾아가는 사업설명회’에서 지역 소재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홍보와 함께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관계자와 만나 ‘찾아가는 심의’에 대한 구체적 실행안을 협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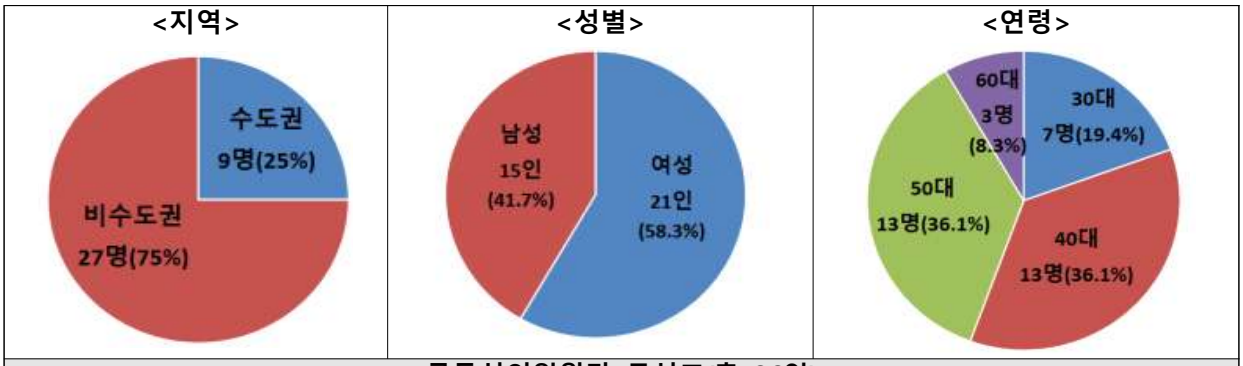
	
충청권 4대 광역문화재단과 협의('19.11.1.)	영남권(울산) 추가 사업설명회 진행('19.11.15.)

당초 제시했던 실행안은 4가지로 **① 17개 광역문화재단 추천제도 시행 ② 권역별 신청단체 그룹별 토론 및 상호평가 (Peer Group review) 진행 ③ 공동심의위원단 구성 ④ 지역별 균형 지원을 위한 최소, 최대 선정 비율 마련**이었다.

협의 과정에서 ① 17개 광역문화재단 추천제도 시행의 경우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당장 추천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재단별 평가체계와 기준이 다르고, 단체 추천을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일정상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초 사업 공고문에 예정 사항으로 기재된 지역문화재단 추천(20% 반영)은 적용하지 않고, 지원신청 내용상 신청단체의 사업수행 역량만 심의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위 사항은 '20.1.30 지원신청단체 대표자와 실무자의 메일로 안내함)

또한 ② 권역별 신청단체 그룹별 토론 및 상호평가(Peer Group review) 진행의 경우 최초 시도되는 '찾아가는 심의'에서 신청단체 전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지난 1월부터 유행하는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하여 서면심의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③ 공동심의위원단 구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전문가 Pool을 통해 무작위로 추첨하여 섭외한 5인과 더불어,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를 추천('20.1.10.~1.29.)받아 34인을 섭외(수도권 6인, 호남권 6인, 강원권 2인, 충청권 8인, 영남권 10인, 제주권 2인)하여 총 39인의 공동심의위원단을 구성하였다.
심의위원 구성은 지역, 성별, 신진 안배를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미참여한 3인을 제외한 36인이 심의에 참여하였다.



공동심의위원단 구성표(총 36인)

또한, 추천해 준 지역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심의위원 섭외 결과를 알리고, 지역 신청단체의 역량 및 특이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며('20.1.28.~2.5.) 심의 당일에도 재단 직원이 참관할 수 있게 하여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지역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④ 지역별 균형 지원을 위한 최소·최대 선정 비율 마련의 경우 위원회가 제시한 17개 시·도별 최종 선정 비중 최소 5% ~ 최대 20% 쿼터 도입에 대하여 지역문화재단 관계자들 또한 모두 공감하여 이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지원신청 자체가 없거나 최소 5%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찾아가는 심의'를 진행하였다.



강원권 심의('20.2.12.)



수도권 심의('20.2.18.)



영남권 심의('20.2.20.)



제주권 심의('2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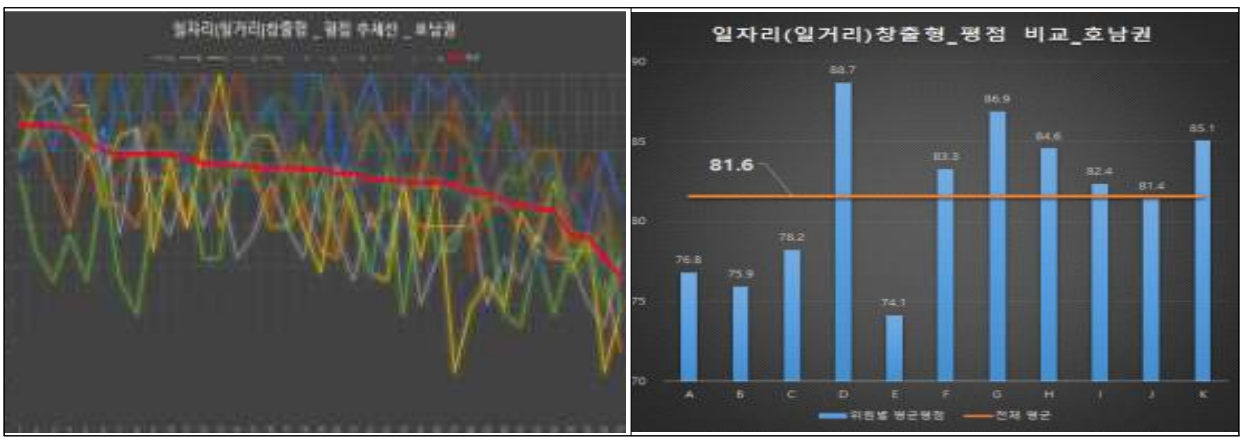
충청권 심의('20.2.14.)



호남권 심의('20.2.10)

심의 진행 시 사업에 대한 논의에 앞서 '찾아가는 심의' 추진 배경 및 현황과 더불어 사업 소개, 심의 계획, 공정심의 운영, 지원신청 현황, 심의 방향성 및 가채점 분석 자료를 심의위원에게 설명하였다.

또한 공정한 심의 진행을 위하여 신청단체 전체에 대한 '사전전수검토제'를 추진하였고 위원별로 단체별 평가의견을 받았다. 동시에 '사전 가채점제'('20.1.8.~2.13.)를 통해 위원별 채점 경향을 분석하여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위원별 심의 기준과 사업의 우수 여부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수 있게 하였다.



모든 심의위원이 함께 심층 토론을 진행한 후 심의위원별로 신청 사업에 대하여 5단계 등급으로 채점을 하였고, 이를 배점으로 환산하여 고 평점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ㅇ 지원심의 방향성

<일자리(일거리)창출형>의 경우 기관 설립 목적에 따라 기초예술기반 프로그램을 우선 고려하였고, 단체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에 집중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거리를 늘리자

는 사업 목적에 맞게 참여자 수가 많은(청년예술가가 혜택을 많이 받는) 단체를 우선 고려하였고, 공공사업 영역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신생 단체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 또한 함께 검토하였다.

<사회문제해결형>의 경우 청년예술가들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력과 기여도가 적절하고 효과적일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다만, 본 사업유형의 명칭인 사회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의 청년예술가들이 현재의 사회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깊이 있게 접근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일거리)창출형> 지원신청 내용과 변별성을 갖고 향후 다년도 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도 함께 고심하였다.

또한 두 유형 공통사항으로 '청춘마이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같은 유사 사업에 지원한 내용을 그대로 본 사업에 지원한 경우가 많았기에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여부를 심의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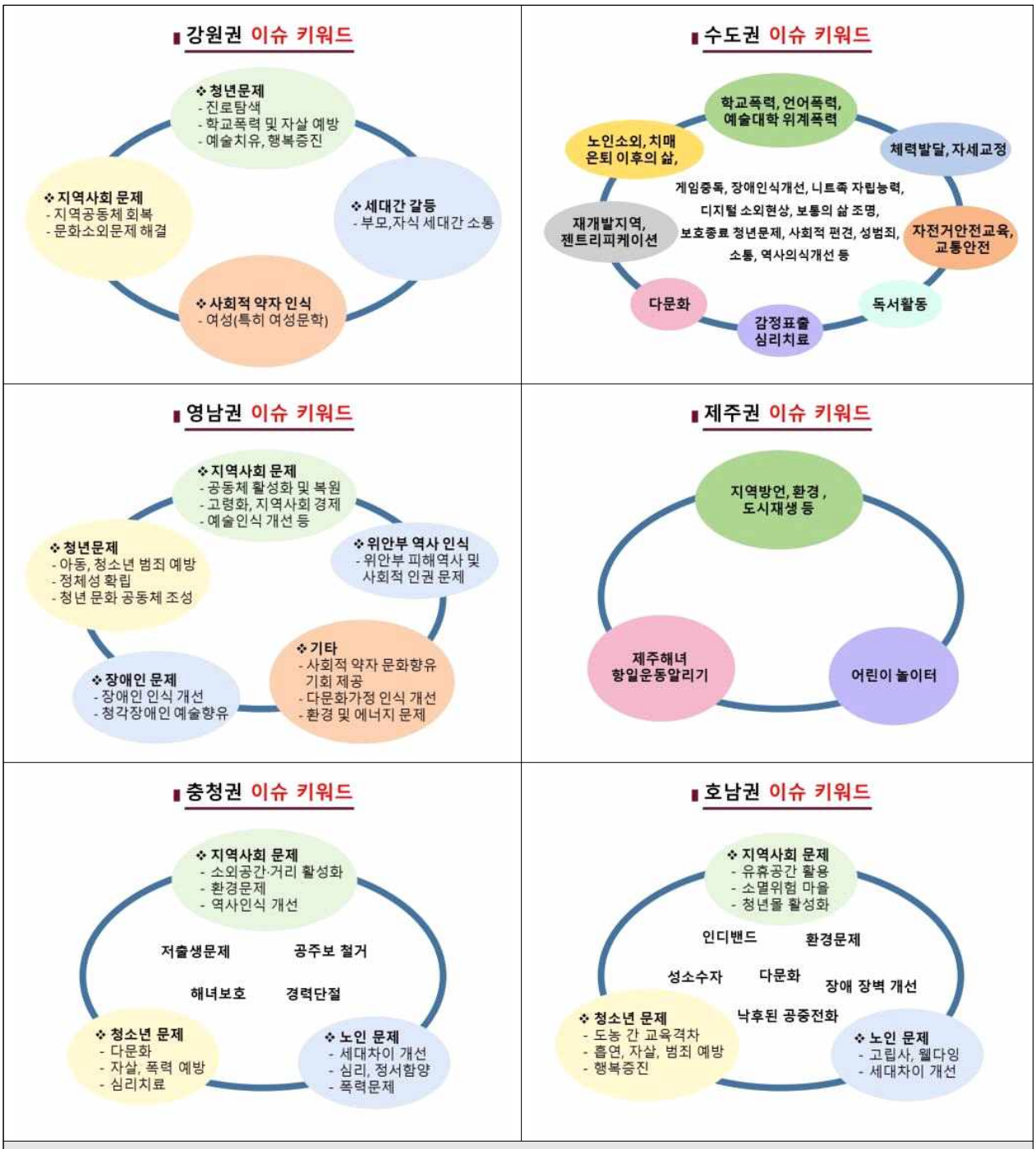
ㅇ 심사평

<일자리(일거리)창출형>의 경우, 본 사업을 향유 사업이 아닌 창작사업으로 착각하여 공연 창작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일부 있었으며, 향유자들이 예술단체의 프로그램을 어려워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낮고 특성이 흐려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기초예술보다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한 단체가 많았는데, 특히 생활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연계성 없이 나열되었으며 대상자 중심이 아닌 기획자 위주의 사업으로 설계된 케이스가 많았다.

특이사항으로 <일자리(일거리)창출형>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실제 사업 진행은 5월경에 시작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진행 횟수 40회(지원금 1억원) 지원을 일괄 30회(지원금 7천5백만원) 지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를 6개 권역 공통으로 적용하였다.

<사회문제해결형>의 경우 시범사업인 만큼 대표성을 가질만한 3건을 선정하려 하였으나, 예상보다 많은 건이 접수되어 권역별 1~2건 선정안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일자리(일거리)창출형>에 접수된 건들과 차별화된 점이 부족하여 더 많은 건을 선정하기는 어려웠다. 청년예술가들이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어떤 사안을 왜 문제로 보는가'라는 관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깊이 있는 접근을 한 단

체가 드물었고 권역별로 다루는 사회문제의 주요 이슈가 유사하였다. 또한 단순히 사회적 이슈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술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예술 활동이라고 판단할 우려가 있어 향후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더욱 적합한 형태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제해결형> 권역별 이슈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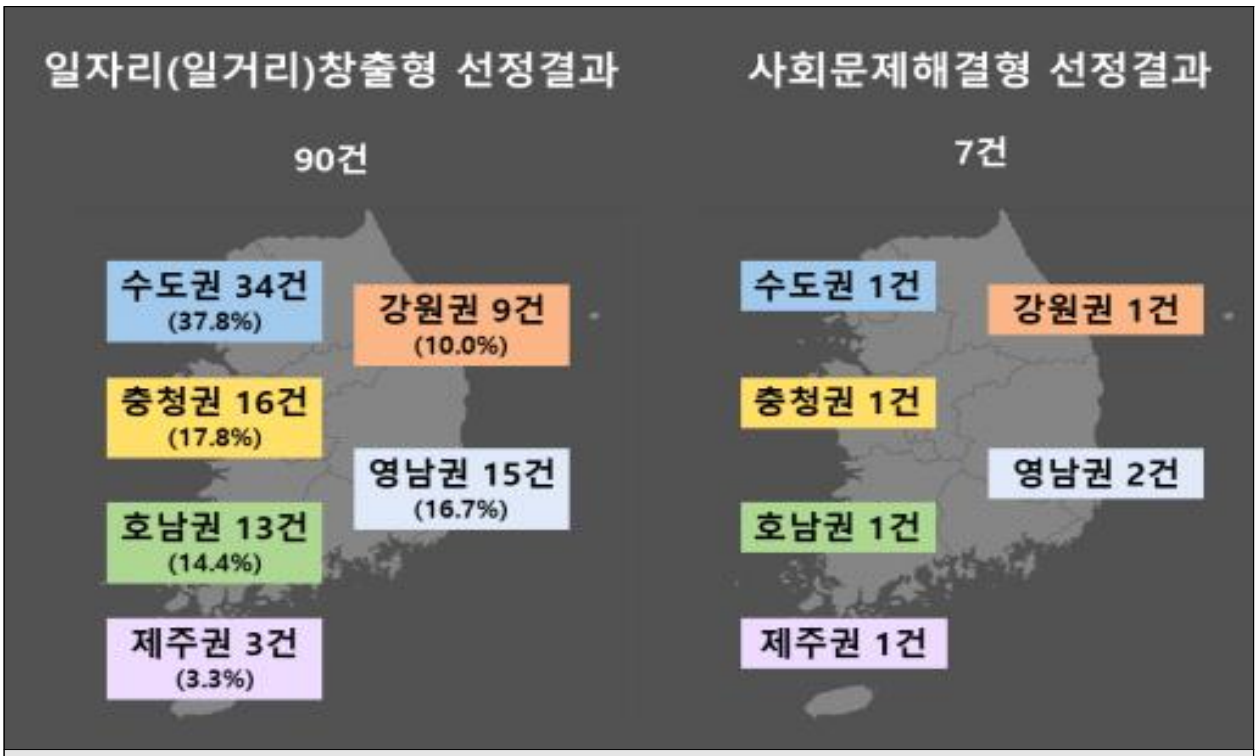
두 세부 유형의 공통사항으로, 콘텐츠 자체는 참신하나 지원신청서 작성 시 서류 작성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특정 단체에서 파생하여 타 단체를 신설하면서 동일한 출연진을 참여시킨 유사 프로그램으로 타 유형에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도 있었는데 두 경우 모두 프로그램 중복문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려웠다.

권역별 심사평은 다음과 같다.

강원권	두 유형 모두 전체적으로 비강원권 소재 단체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일자리(일거리)창출형>의 경우 전체 24건 중 서울, 경기 등 소재 단체가 16건으로 약 66.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사회문제해결형>은 접수 건수 6건 중 5건이 비강원권 단체에 해당할 만큼 강원권 소재 단체의 신청이 저조하였다. 강원권역의 <사회문제해결형> 유형에 신청한 단체들이 다루는 이슈는 주로 청년층 문제, 세대 간 갈등,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등이었다. 다만, 강원권 지역만의 특색이 담겨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지역과 연계된 사회문제에 대한 통찰이 있기를 바랐으나, 일부 강원 소재 단체를 제외하면 대체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수도권	수도권의 신청 접수현황의 경우 두 유형을 통합하여 수도권 소재 단체가 96.5%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에 신청 건수가 집중되어 있으며, 인천 소재 단체의 신청 건수는 총 141건 중 7건(일자리(일거리)창출형 5건, 사회문제해결형 2건)에 그쳐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다소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문제해결형> 신청 단체가 다루는 주제를 살펴본 결과 고령화, 다문화, 환경, 재개발, 젠트리피케이션, 청소년 문제 등 전 권역을 통틀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었다. 특히 몇몇 주제들은 수도권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한 주제 선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도 있는 접근과 사전 리서치 등이 부족해 보인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으며, 특히 최근의 사회 이슈를 다루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예술 활동이라고 유형화하는 접근방식에 대하여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다. 주제 그 자체보다는 주제를 다루는 예술적 방식과 예술이 유도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있기를 바란다.

영남권	영남권의 신청 접수현황의 경우 영남권 소재 단체의 신청 비율이 9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청년예술형 사업에서 신청 건수가 0건이었던 울산 지역에서 두 유형 합계 11건이 접수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영남권 내에서도 신청 건수가 광역시(부산, 대구, 울산) 소재 단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경남(11.4%), 경북(7.1%) 소재 단체는 비교적 낮은 신청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업 장르의 특이사항으로는 타 권역과 비교해 전통예술의 분야의 비율이 높다는 점으로, 영남권 접수 49건 중 절반에 가까운 20건(41%)이 전통예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문제해결형>의 경우 타 권역과 유사하게 지원 단체들이 전반적으로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심도 있는 고민이 이루어진 사업을 찾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타 권역과 비교해 비교적 우수한 사업이 눈에 띄었으며, 주요 주제로는 장애인 인식 개선, 청년 문제, 지역사회 및 공동체 문제 등이 있었다. 특히 조선소라는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공간을 중심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나, 사전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층의 선제적인 요청으로 진행하는 사업 등이 돋보였다.
제주권	제주권은 전 권역 중 유일하게 전년 대비 접수 건수가 감소(11건→9건)한 권역으로 특히 9건 중 7건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단체의 지원신청 건이었다. 제주 소재 단체의 지원신청 건은 <일자리(일거리)창출형>에 지원한 2개 단체뿐으로 제주 소재 청년예술가들의 지원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향후 예술위원회와 제주문화재단이 연계하여 사업 안내와 홍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제주권역 <일자리(일거리)창출형> 심의의 경우 섬이라는 제주의 환경과 지역적 특성,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화 소외 현상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제주권역 <사회문제해결형> 신청 건들은 제주 방언, 도시재생 및 환경 문제, 제주지역의 역사적 사실 환기, 지역 간 어린이 놀이공간 불균형 문제 등을 다루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기획 아이디어와 취지는 준수하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프로그램의 내용이 기획 의도와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주제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 방식, 리서치 부족 등 역시 아쉬운 부분이었다.

충청권	충청권은 타 권역 대비 수도권 소재 단체의 지원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재 단체의 신청률은 67.2%, 서울, 경기, 인천 소재 단체의 신청률은 32.8%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단체의 지원서는 2개 유형 총 61건 중 3건만 접수되었고 그 중 <사회문제해결형>에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사업 장르의 경우 전통예술(9건), 연극(9건), 클래식(8건), 대중음악(8건) 등이 비교적 고르게 신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문제해결형>의 경우 도심 내 소외공간, 환경 문제, 다문화, 청소년 및 노인 문제 등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타 권역과 동일하게 현재 충청권 내 사회문제의 인지 여부와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단발적인 문제 제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활동인지에 대한 여부도 주요한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지역사회의 주요 사회문제를 참신하게 바라본 건도 일부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일자리(일거리)창출형> 유형 신청내역들과의 차별성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호남권	호남권은 호남 지역 소재 단체의 신청 비율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권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일거리창출형>은 75.7%, 사회문제해결형의 경우 83.3%의 비중을 나타냈다. 다만, <일자리(일거리)창출형>의 경우 전북 지역의 신청 건수(4건)가 비교적 적었다. 사업 장르의 경우 호남권 또한 전통예술 분야의 신청 건수가 많은 경향을 따르고 있었으나, 타 권역과는 다르게 시각예술 분야 단체의 신청이 비교적 많아 장르의 다양성 차원에서 반가운 부분이었다. 호남권역 <사회문제해결형>에 지원한 단체들이 다루는 주제는 타 권역에서도 보편적으로 다루었던 청소년 및 노년층, 다문화 등을 비롯하여 유휴 공간 활용, 성 소수자 문제, 소멸위험 마을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하여 호남지역의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사회문제와 이슈를 어떻게 문화예술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실행방안 부분은 다소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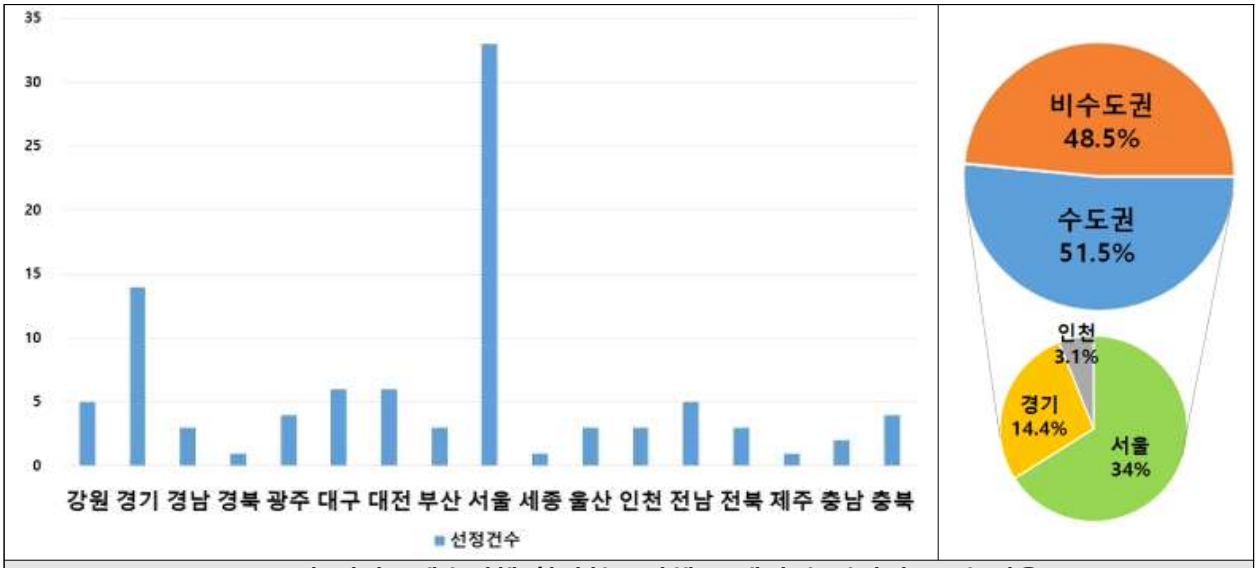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청년형> 최종 선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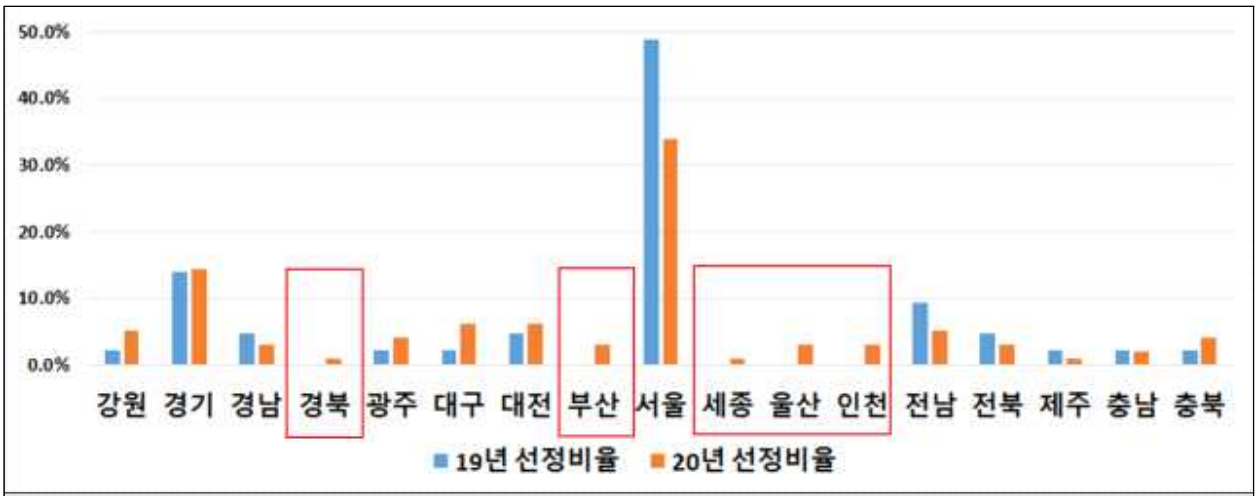
앞서 서술한 지원심의 방향성을 기본으로 심의위원들과 심층 논의 끝에 <일자리(일거리)창출형> 90건, <사회문제해결형> 7건으로 총 97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권역별로는 강원권 10건(일자리 9건, 사회문제 1건), 수도권 35건(일자리 34건, 사회문제1건), 영남권 17건(일자리 15건, 사회문제 2건), 제주권 4건(일자리 3건, 사회문제 1건), 충청권 17건(일자리 16건, 사회문제 1건), 호남권 14건(일자리 13건, 사회문제 1건)이 선정되었다. <일자리(일거리)창출형>의 경우 신청 건 대비 38%가 선정되었으며 작년 선정률인 19%에 비하여 2배 늘어난 수치이다.

지역별 균형 지원 차원에서 17개 시·도 소재지별 최대 선정 비율 20%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서울 소재 단체를 제외한 모든 단체가 고루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소재 단체의 신청 비율이 30%가 넘어 현실적으로 선정 비율 20%를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14% 정도 감소한 수치임을 밝힌다.

또한, 단체 소재지별 선정 비율을 작년과 비교하였을 때 19년도에는 경북, 부산, 세종, 울산, 인천지역 선정이 모두 0건이었으나 올해는 경북 1건, 부산 3건, 세종 1건, 울산 3건, 인천 3건이 선정되어 17개 시·도 소재지 모두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20년 신나는예술여행-청년형> 단체 소재지별 선정건수 및 비율



2019년-2020년 단체 소재지별 선정비율 비교

끝으로 본 사업 공모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내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단체에 유감을 전한다.

청년형 심의위원 일동